

성도의 벗



2
/ 1990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벗

1990년 2월호

목 차

- 2
대관장단 메시지
가장 값있는 일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 6
내게 축복을 주는 책
메릴 브래드쇼
- 11
“변화될 수 있는길”
자넷 토마스
- 17
“주님에게서 나오는 실제의 힘”
마빈 케이 가드너
- 41
성경 번역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언어 수 : 3,243개
조셉 지 스트링햄
- 45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사람들”
윌리엄 카메론 타운센드
- 50
에케티의 세계
앤 레물렌
- 56
히긴스 형제의 영감
라버드 존
- 62
오직 한 명의 어린이
카렌 에이 앤더슨
- 1
애독자 편지
- 24
방문 교육 메시지
“나를 기억하라”
- 46
질의 응답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어떻게
실제로 향상시킬 수 있나?
로저 케이 테리
- 청소년란
- 10
변화될 수 있는 길
자넷 토마스
- 15
“박해”
대리나 레이놀즈
- 49
물론 메시지
쓰레기는 버리자
- 58
부모와 대화하는 방법
크리스 크로우
- 64
지역소식
- 26
물론경 이야기
리하이가 백성에게 경고함
- 29
기도의 힘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장로
- 30
함께 나누는 시간
교회를 위해 작곡함
팻 그래햄
- 32
친구가 친구에게
에프 에지오 부쉬 장로
- 35
노래 : 예수 그리스도 교회
자니스 캔 페리
- 36
심심풀이 :
이 예언자는 누구인가?
지나비 알그런
- 복음 열 두 가지
자넷 피터슨
- 점선 잇기
하워드 브라우너
- 34
교회 예절
줄리 에이치 젠슨
- 39
유리 백조
페기 바루스

애독자 편지 편집 노트

한국에서 출판되는 교회 잡지인 성도의 벗의 내용이 약간 바뀐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역에서 보내온 제언에 따라 잡지의 구성을 단순화시키며 표준화해서 세계 각처의 출판사에서 훨씬 쉽게 출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칼라 페이지를 16페이지로 늘렸습니다. 그중 8페이지는 어린이란, 나머지 8페이지는 잡지 전체에 적절히 배열될 것입니다. 앞표지 안 페이지도 칼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케줄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잡지가 좀더 일찍 출판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로는 원고가 마감된 날로부터 일년이 걸려야 잡지가 출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서신들을 인쇄해서 편집인에게 보내며 전세계의 독자들의 의견을 다루는 다른 새로운 난을 만들 것입니다. 충실한 독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서신, 기사 및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내는 일에 적극 참여하시도록 초대합니다. (성명, 주소 및 소속 와드와 스테이크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 함에 있어서 서로를 강화해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충실한,
편집부 직원 일동

참된 기쁨

리아호나(스페인어)의 뛰어난 수준에 감사드립니다. 리아호나는 이곳 콜롬비아에 있는 회원과 선교사 및 구도자들에게 참된 기쁨이 되며, 또한 선교사들의 훌륭한 도구입니다.

브르스 에프 카터 부장
콜롬비아 보고타 선교부장

영감에 찬 간행물

나는 에이 리아호나(포르투갈어)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내가 시련에 좀더 잘 직면하도록 도움을 주는 말씀이 항상 실립니다.

그밖에도 나는 세계 곳곳에 있는 회원들의 경험과 말씀 및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기사를 읽기 좋아합니다.

우리 나라에 에이 리아호나가 있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그것이 참으로 영감받은 간행물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 가정에 둘 수 있고, 나의 친구들과 함께 그 가르침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로잔나 카르로스 게이트너
브라질

해결책을 찾음

내가 어떤 특정한 문제로 고민할 때마다 다음달 성도의 벗에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항상 나를 놀라게 했으며,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했습니다.

나는 성도의 벗을 맨 처음 읽기 시작할 때부터 살아 계신 예언자의 사랑에 찬 권고와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 가치와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의 간증을 읽을 수 있었으며, 좀더 구체적인 원리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경전이 의로운 삶에 대한 이론을 제시해 준다고 말할 수 있다면 성도의 벗은 나에게 그 이론을 적용하기 위한 용기를 줍니다.

이제 나는 다음 호를 기다리면서 이번달 호에 실려 있는 예언자의 말씀을 다시 읽을 것입니다.

윤 경주
서울 서 스테이크 노량진 와드

2부를 구독함

나는 디 스테르(네덜란드어)가 매우 귀중한 간행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 회원들에 관한 기사를 즐겨 읽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때로는 미소도 짓고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나는 특히 대회 보고 특집호를 좋아합니다. 거기에서 나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배불리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는 진실로 예언자와 총관리 역원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디 스테르가 없었다면 내가 그들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나는 우리 가정에서 2부를 구독해서 한 부는 나와 아내가 보고, 다른 한 부는 자녀들이 보게 합니다.

시즈 반 임펠렌
네덜란드 비안느

1990년 2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벗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에즈라 테프트 벤슨, 고든 비
링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페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몸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욥스, 엠
러셀 블라드, 조셉 비 위스런, 리차드
지 스코트

교문: 렉스 디 피네가, 진 알 쿡,
제프리 알 홀런드, 프란시스 엠
기빈스, 윌리엄 알 브래드 포드

통 권: 제284권, 제26권, 제2호
등록: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1990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홍 무 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인쇄인: 영인쇄주식회사 이 세 용
International Magazine PBMA9002KO
Printed in Korea 2/90

© 1990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4,000원
입니다. 권당 4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의 구독일 경우에는 우송료를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값있는 일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선교사가 되고 온전히 복음대로 생활하며 그의 왕국 건설을 돕기 원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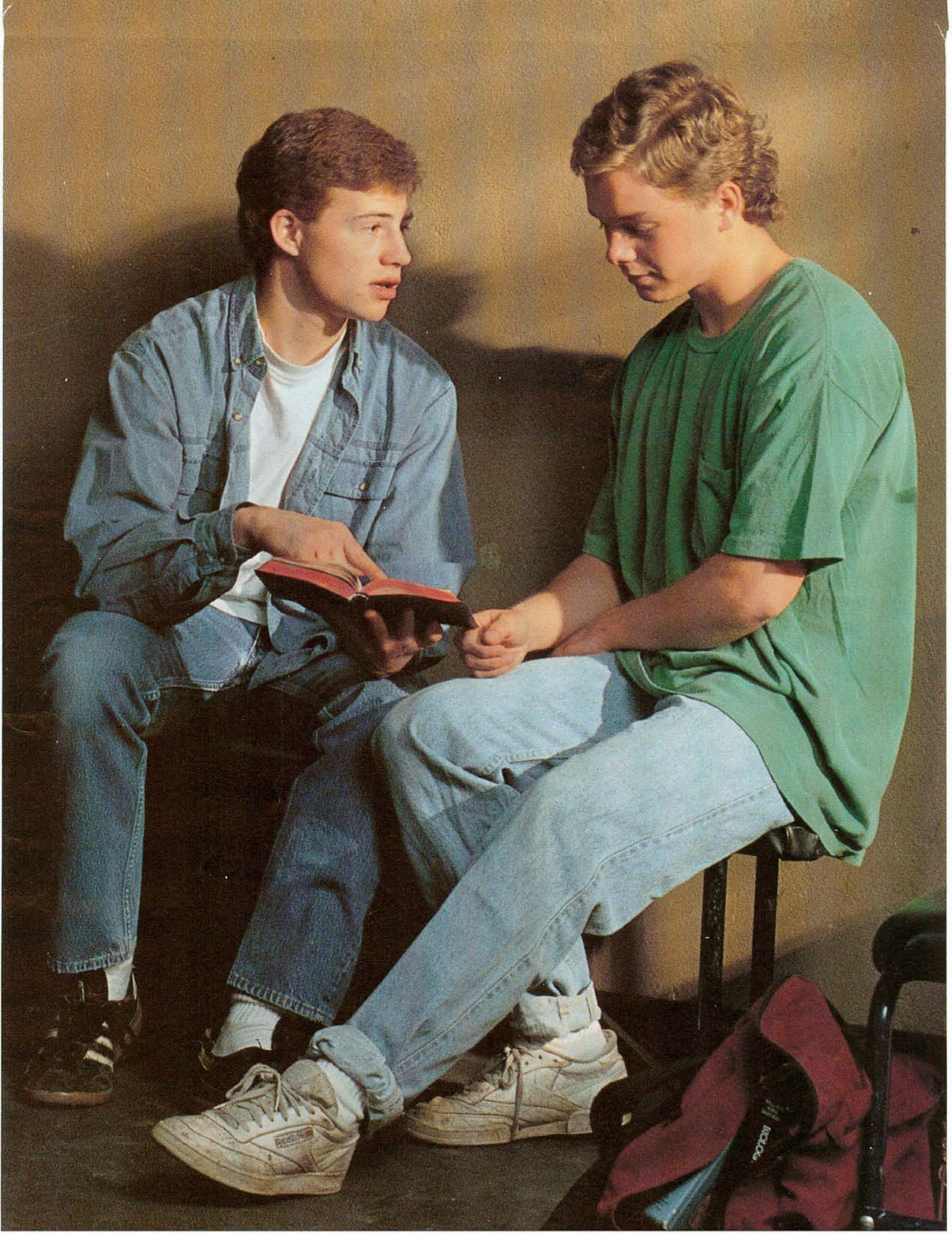
선교사들은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것처럼 중요하고, 것처럼 소중하고, 것처럼 기쁨을 주고, 것처럼 만족감을 주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가장 값있는 일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며”(교성 15:6)

주님의 교회의 회원인 우리는 선교 사업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면, 또한 선교 사업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인간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편을 읽으면서 교회가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온 세상에 선교사를 내보내는 이유를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책임은 교회의 회원이 직접 지게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내가 택한 제자의 입으로 경고의 음성이 온 백성에게 미치리라.”(교성 1:4)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훌륭한 도구의 하나로 복음대로 생활하는 회원의 완전한 모범을 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온은 그 아름다움이 더해져야 하고 거룩함이 더해져야 하고... 시온은 마땅히 일어나 그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느니라.”(교성 82:14) 회원들이 선교 사업에 대한 책임을 신앙을 갖고 행하려고만 한다면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 위대한 사업의 중요성을 내다 보아야 할 때입니다. 교회의 회원으로서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선교사가 되고 온전히 복음대로 생활하며 그의 왕국 건설을 돕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 대해 동정심을 갖지 못한다면,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전해질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느낌에 동감할 때 그들은 여러분에게 선의로 보답하게 됩니다. 친구를 사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성찬식이나 스테이크 대회에 초대해 본 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또는 여러분의 가정의 밤에 초대하는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복음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적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훌륭한 경험이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기록을 성경에서만 읽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미대륙에 있는 사람들에게 몸소 나타나신 몰몬경의 기록을 읽고 비회원 친구에게 전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들에게 몰몬경을 한 권 기증하거나 빌려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것이라도 빌려 주십시오. 그 책은 그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몰몬경은 우리가 선교 사업에서 사용해야 할 가장 훌륭한 표준입니다. 그것은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였음을 보여 줍니다. 그 책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 있으며 그 책의 위대한 사명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이차적인 것입니다. 몰몬경에서 묻고 있는 가장 훌륭한 질문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합니까?”하는 것입니다.

몰몬경은 회원과 비회원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더불어 몰몬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개종시키도록 주신 가장 훌륭한 도구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맞아 들이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마련하신 도구인 몰몬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몰몬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선교 사업에 임하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우리에게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몰몬경을 알고 사랑하는 와드, 지부 및 훌륭한 가정의 출신인 더욱 더 훌륭하게 준비된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서 몰몬경의 신성함에 대한 뜨거운 간증을 갖고, 영으로써 구도자에게 그것을 읽고 생각하도록 목표를 주며, 주님께서서는 성신의 권세로써 그 책의 진실함을 나타내 보이심에 대하여 완전한 확신을 갖고 있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합당한 선교사를 필요로 합니다.





도덕적으로 자신을 깨끗이 지키고, 교회 모임에 충실하게 참석한 젊은이들을 보내 주십시오. 자신의 신권을 영화롭게 완수하는 젊은이를 보내 주십시오. 세미나리를 이수하고 물론경에 대해 뜨거운 간증을 가진 젊은이를 보내 주십시오. 그러한 젊은이를 보내 주시면 나는 선교 지역과 그의 생애에서 주님을 위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젊은이를 여러분에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젊은 여성도 복음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결혼 전에 하와이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의 손녀들도 선교사로 봉사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장 훌륭한 선교사들 중에는 자매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복음 선교사로서든, 회원 선교사로서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공하려면 이 사업의 신성함에 대해 뜨거운 간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수행해야 할 책임은 기도를 통해, 금식을 통해, 명상을 통해, 연구를 통해, 그러한 간증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함을 통해, 부름이 올 때 그것을 받아들임을 통해 그러한 간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요, 세상의 구속주임과,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알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신권과 권능이 이곳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커다란 기쁨과 기대로 복음을 전할 날을 고대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목적은 인간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 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가르치고 침례를 줌으로써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교성 18:15 참조) 것입니다.*

가정 복음 교사를 돕기 위한 토론

1. 주님께서 왜 우리가 단순히 교회 회원으로서 성찬식에만 참석하는 것 이상을 기대하시는가?
2. 세상을 개종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훌륭한 도구”는 무엇인가?
3. 벤슨 대관장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업의 신성함에 대해 “뜨거운 간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그러한 간증을 얻고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4.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을 받고 있는 가족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개인적인 선교사 경험이 있는가? *

내게 축복을 주는 책

메릴 브래드쇼

나는 물론경의 기적적인 출현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을 의심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그러한 일들이 단지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다. 어렸을 때 나는 나에게 무엇인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었다. 왜냐하면 물론경에 대해 기도해 보았을 때 느낄 수 있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진정한 이유는 나는 항상 물론경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질문은 응답될 것이며 그 책은 여전히 효험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해해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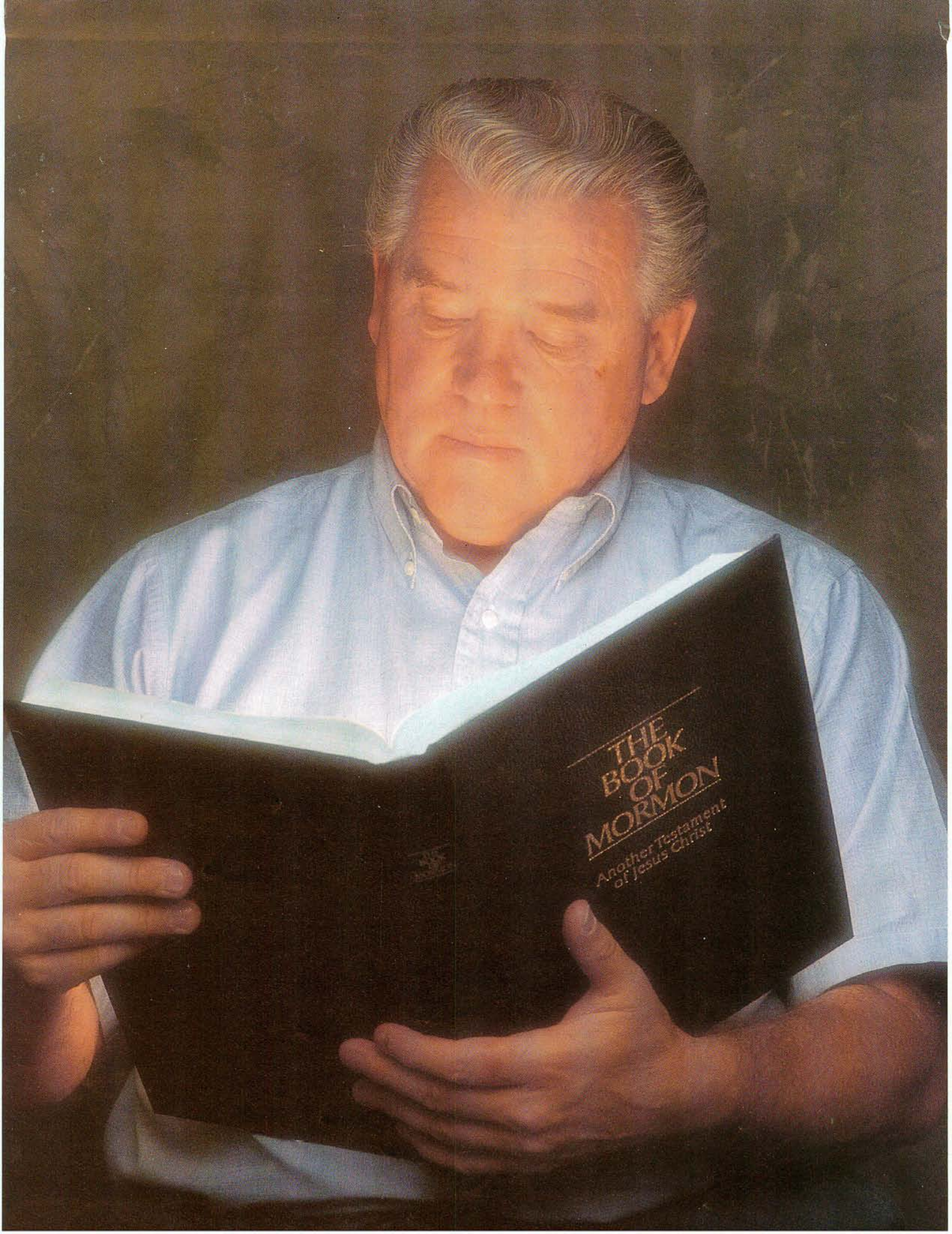
그 결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 책에 대하여 기도하고 냈을 때 “그 책은 참되다”는 뜨거운 느낌을 느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교회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쳤다. 그러나 여기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론경이 참되다고 나에게 말해 주는 특별한 영적인 나타내심이 아니라도 나는 내 생애를 통해 많은 시간 동안 그 책과 그 책의 출현 그리고 기타 현존하는 여러 가지 증거를 연구해 온 것이다. 어떤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생각해 보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나는 우리가 그 책에 대하여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우리의 신앙의 닦으로 굳게 서게 됨을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특별한 증거가 없더라도 그것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 큰 축복을 준다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축복을 주었는가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

1) 1950년에 내가 스위스로 선교 사업을 나갔을 때 나는 이미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3년간 독일어를 공부했었다. 나는 그 당시까지 물론경은 읽지 않았지만 선교사가 되기 위해 잘 준비되어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스위스인들의 일상 용어와 방언 형태를 듣고난 나는 기가 꺾이고 말았다. 내가 배운 것을 적용하기가 무척 어렵게 되었다. 동반자와 나는 매일 아침 교대로 맥스 짐머 독일어판 물론경을 큰 소리로 읽었다. 그 책은 오래된 독일어체로 쓰여 있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독일어 물론경을 읽음으로써 언어의 리듬과 흐름이 점점 쉬워졌으며 나는 곧 사람들과 대화를 더욱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는 경전 읽기는 이해하기 어려운 니파이이서에 나와 있는 이사야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읽는 동안 나는 흥미있고 아름다운 이사야의 시를 알게 되었고 인간의 역사를 내다 보았던 그의 시현과 가난한 자와 과부에 대한 큰 관심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이사야 전체에 대한 평생의 연구를 시작케 했다. 그 책에 대한 연구는 영적인 공평을 느낄 때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경전 읽기는 예언자들이 영원한 관점의 참된 의미를 주는 면에서 우리의 생활 지표를 삼는 방법을 나에게도 알려 주었다. 이와 같이 길을 열고 시작해 나가자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이해, 구원의 계획, 나의 가치와 목표, 나 자신의 삶의 의미가 한층 더 분명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와 내 동반자가 스위스의 베른에 있는 다락방에서 이른 아침 돌아가며 물론경을 읽던 그때에 시작되었다. 그것은 언어에 대한 공부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의 시작이기도 했다.

2) 몇 년 전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나는 일학년



THE
BOOK
OF
MORMON
Another Testament
of Jesus Christ

학생반에서 물몬경을 가르칠 교사 자격 준비를 하기 위해 세미나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 그 육주 동안 나는 물몬경을 두 번이나 읽었다. 읽으면서 요약하고 의미를 생각하고 특별히 아름다운 구절과 교리를 음미하기까지 했다. 그것은 그 책에 대한 나의 사랑을 한층 더하게 했다. 나는 그 책과 더 친근해질 수 있었으며 나의 관심을 끄는 주제를 깊이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는 어떤 특별한 하늘의 나타내심이나 증거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것은 책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우리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의 아름다움과 경고의 중요성을 한층 더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내가 복음 교리반에서 물몬경을 가르칠 때 더욱 커졌다. 나는 얼마나 물몬같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를 알게 되었고 나와 같은 사람에 대한 그들의 염려를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그 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의도하는 많은 내용들은 우리가 그 책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책을 보존해 오신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깊은 사랑과 비교할 때 대수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우리는 가끔 가족이 함께 경전을 읽었다. 나는 우리가 권고받은 것 만큼 정규적으로 읽었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함께 경전을 읽는 시간의 반 이상은 물몬경을 읽는데 보냈을 것이다. 우리는 함께 하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즐거움을 느꼈다. 큰 아이들은 그것에 대한 즐거운 추억을 갖고 있다. 우리 가족에서 다섯 명의 선교사가 배출되었다. 그들은 내가 준비되었던 것 만큼 준비되었다. 그들은 물몬경 전부를 여러 번 읽거나 그에 대해 극적인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참된 책으로 받아들였다. 감동적인 영적인 경험은 없었지만 물몬경은 우리 가족과 신앙과 삶의 모든 면에서 닳이 되어 주었다. 그것은 우리 종교의 종석이며 참으로 그것은 의미있는 말이다. 물몬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성에 대해 생각할 때 하늘로부터의 어떤 나타내심이라 하더라도 그 책보다 더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성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늘 분명하고 직접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조그만 일들을 통해 훌륭하고 행복한 삶, 즉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생산적이고 확고한 삶을 건설할 수 있는 기초를 성신은 마련해 주신다. 물몬경은 나에게 있어 그러한 기초의 일부가 되며, 그 중요성은 나에게서 계속 증가되고 있다. 나는 주님께 그러한 축복에 대해 감사드린다.*

감동적인 영적인 경험은 없었지만 물몬경은 우리 가족과 신앙과 삶의 모든 면에서 닳이 되어 주었다.





“변화될 수 있는 길”

자넷 토마스

수 켈러는 군중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군중을 이끌었다.

수 켈러의 침실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다. “나는 변화될 수 있다.” 그녀는 말씀 가운데서 그 구절을 듣고 사진과 포스터를 수집하는 벽에 그것을 덧붙여 놓았다.

그러나 수는 표어를 붙여 놓는 것 이상의 일을 했다. 그녀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살아 있는 표본이다. 그녀는 그녀가 다니는 학교인 마운트 시 고등학교(워싱턴 주, 노스벤드)에서 학생 회장과 배구 및 농구팀의 주장 그리고 세미나리 반의 반장으로 봉사했다. 수는 어떤 큰 행사-재능 발표회나 학교에 페인트 칠하는 일-에서 친구들을 격려하여 작년에는 기억에 남는 고등학교로 만들었다.

수는 처음부터 지도자는 아니었다. 그녀는 시행 착오를 통해 지도력을 배웠다.

수도 여느 학생들과 다름없었으나, 성장해 가면서 다른 학생들은 그녀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교회에서 그녀가 받은 교육은 그녀에게 친구들과는 다른 가능성을 주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은 끔찍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들을 위해 울곤 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붙잡고 묻고 싶었어요. ‘도대체 뭘들하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실망했어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지요 ‘애, 수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그녀가 친구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보겠다고 결심한

것은 그때였다. 그녀가 다니는 스노쿠알미 벨리 와드의 알렌 댄스 감독은 그녀가 친구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았다. “수는 항상 훌륭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녀는 와드와 학교에서 약한 사람들을 강화시켰어요. 그녀는 친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모범의 결과로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달라진다는 것은 말하기는 쉽다. 2년전 쯤 여학생 농구 시즌이 시작되기 전 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들은 그녀의 제안에 따라 전반전 경기가 있기 전에 기도했으며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 “나는 경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묻기도 하지요. ‘오늘은 누구 기도하고 싶은 사람 없니? 몇 번은 다른 친구들이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팀 전체가 모여 서서 내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수, 네가 기도해라’하고 말합니다.”

학생 회장 선거 운동을 하는 중에 수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소개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훌륭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고등학생들이라면 당연히 그러하듯 그러한 주제를 비웃고 조롱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러나 수는 한 해 동안 학교의 모든 활동에서 그 주제를 계속 활용하였으며 비웃음은 서서히 사라졌다. 학교장은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는 늘 무엇인가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람과 비웃는 사람들이 있지요. 수는 그녀의 유쾌한 태도와 사람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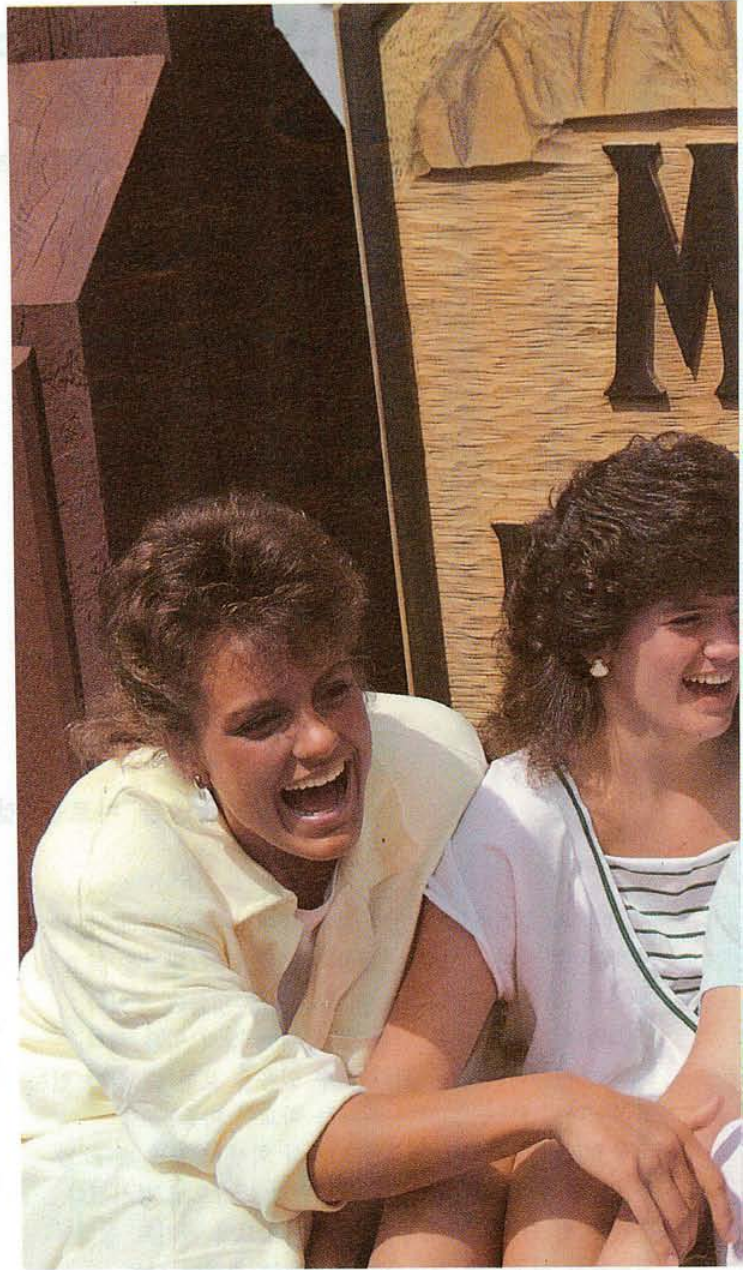
주제를 비웃을 때 그것을 변호하려 애쓰거나 스스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제는 그 한 해 동안 학생들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마운트 사이의 학생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완성시켜야 했던 일 중의 하나는 학교 현관에 칠을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다른 학생 간부들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결정했다. 그 일을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도움을 주어야 할 학생들이 이백명 이상이 필요했다. 즉 벽을 다듬고 일차 칠, 이차 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늬를 넣어 칠하는 작업이었다.

교감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들이 갖는 첫 모임에 들어가 보고 성공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수가 조직하고 일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녀가 갖고 있던 노트에는 영감을 주는 말씀들과 필요한 일들의 목록 및 각 단계의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필요한 사람들을 그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학생 지도자로 생각하는 몇몇 학생들도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학교의 관리 직원도 몇 사람 초대했으며 나도 그 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녀는 조직에 대한 기술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페인팅하는 작업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몇 가지 위기를 겪어야 했다. 4일 간의 일 중 첫째 날은 맑고 청명했다. 일년 내내 그처럼 맑은 날은 드물었다. 수는 이렇게 말했다. “갑자기 걱정이 되었어요. 누가 그처럼 좋은 날씨에 학교에 페인트 칠을 하러 올 것인가? 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왔다. 두번째 위기의 때였다. 벽에 페인트 칠을 할 준비를 마친 뒤에 일차 칠을 할 때가 되었다. 백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페인트 칠을 시작할 준비를 갖추었을 때 학교 관리인이 급하게 수에게 달려와 페인트 통에 있는 설명서를 보여 주었다. 가연성인 일차 칠에 사용되는 페인트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들은 모든 창문을 열고 전기 불꽃을 피하기 위해



교회는 수에게 가장 큰
인도와 위로의 원천이
된다.





전기를 꺾으며 전기 콘센트는 모두 덮었다. 그동안 수는 또 다른 도움을 구하려 다른 곳을 찾아 갔다. “나는 빈 방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모든 것이 잘 되었다. 위험은 제거되고 학생들은 즐겁게 일했다. 그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었다.

학교 현관에 엮은 회색을 한 번 더 칠한 뒤 붉은 색 띠를 칠한 뒤 수의 지도하에 일한 학생들은 학교에 대해 새로운 긍지를 느꼈다. 벽에 낙서를 하거나 흠을 낼 생각을 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들은 다른 학생들에 의해 경고를 받았다. “그러지 마. 이 벽은 내가 칠했어. 아무도 낙서하지 못해.”

그런 다음 재능 발표회가 있었는데 학생들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거나 인정받는 연기를 할 수가 있었다. 수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도 훌륭한 것은 우리에게 이토록 재능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운동 선수들처럼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시도한 것은 바로 그런 점이었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발표회에 출현하는 것을 가슴 설레이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학생과 부모를 위해 그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첫번째 여자 친구와 헤어진 학생도 있었고 유명한 운동선수가 소프트볼 팀에서 술을 마심으로 인해 탈락된 경우도 있었다. 학교장은 그런 경우에도 수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그 또래의 남녀 학생들을 돕고 격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기분이 언짢은 친구의 어깨에 팔을 얹고 흠을 걸어 가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학생 회장을 불러 도움을 주게 하는 것은 많은 학생들에게 참으로 의미있는 경험이 됩니다. 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을 잘 도와 줍니다.”

그렇다면 수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가져 오게 하는 힘을 어디에서 얻는 것일까? 수는 이렇게 말한다. “엄마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다 이야기 해요. 엄마에겐



“수는 항상 훌륭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녀는 와드와 학교에서 사람들을 강화시켰어요. 그녀는 친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모범의 결과로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친구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반원들에게 훌륭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부모님이 주시는 충고와 인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모두 수 켈러가 배운 것으로써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한 것들이다.



해답이 있지요. 엄마는 학교 문제나 남자 친구 문제에 대해 해야 할 일을 말해 주지요. 그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엄마와 아빠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거예요.” 수는 또한 다른 식구들로부터 좋은 충고와 도움을 받는다.

교회는 수에게 가장 큰 인도와 위로의 원천이 된다. 청소년 대회에서 감독은 모든 청소년에게 그들이 이미 간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참되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 기도하라는 과제를 주었다.

수는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그 목표를 받아들였다. “나는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나의 간증을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들은 내가 물론인 것을 가끔 놀려 댔어요.”

수는 기도했다. 그러나 응답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한 친구와 교회에 대해 심각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 친구가 물었다. “수야, 너 어떻게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니?”

“나는 문득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말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간증을 전하면서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말했어요. 나는 그날 저녁 때까지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친구는 수에게 켈러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곧 그 친구는 수와 함께 세미나리에 참석했으며 선교사와 토론을 시작했다. 수는 이렇게 말했다. “아주 좋았어요. 전에는 한번도 친구에게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었어요.”

수 켈러는 그저 평범한 소녀이다. 그러나 그녀는 변화를 가져 본 사람이다. 그녀의 아버지인 와드 켈러는 수의 독특함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애는 특별한 데가 있습니다. 그 애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는 변화를 가져 오는 데 도움이 되는 자질을 이렇게 말했다. “그 애는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었어요. 그 애는 자신의 표준과 믿음을 높이 지녔으며 그대로 생활했습니다.”

세상에는 복음의 표준대로 생활함으로써 변화를 가져온 수 켈러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은 적든 그들의 경험담을 독자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러한 변화를 가져 온 사람을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낼 주소 :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25th floor, Salt Lake City Utah, U. S. A. 84150

보내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도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 해”

대리나 레이놀즈



부 모님이나 내가 교회에 입교한 지 이제 일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리 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두 명의 선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며, 강한 간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기로 결정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되고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치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나는 11년간 다녔던 이전 교회에서 사귄 친구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나는 아기보는 일을 많이 했는데 교회를 바꾸자 아이의 부모들은 나에게 다시는 아이보는 일을 맡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집에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나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학교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으며, 집에 오면 편지통에 교회를 반대하는 소책자가 들어 있었고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는 협박을 받아 침례를 연기해야 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침례를 받기로 되어 있는 날 전화를 받고는 침례를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우리가 침례받은 것을 참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엄마에게 친구를 다 잃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매맞고 침뱀음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여졌습니다. 나의 문제는 그에 비하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교회에 가입한 것에 대해 박해를 받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그것을 견디어 내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나는 다시 아이보는 일자리를 얻게 되었으며,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와드에서 참으로 훌륭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으며, 그곳에서 많은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서로 관심을 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려움을 다시 견디어낼 것이며 복음을 위해 더 큰 어려움도 감당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주님에게서 나오는 실제의 힘”

마빈 케이 가드너

그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의사는 그 가족에게 그들의 부친이 암에 걸려 앞으로 기껏해야 수개월 밖에 살 수가 없다고 했다. 의술로써는 더 이상 어찌 할 수가 없었다.

슬픔에 젖은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은 핵 기술자로, 기술의 기적을 통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전문가였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기술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

금식과 기도의 영으로 리차드 스코트는 그의 네 형제들과 함께 둥그렇게 모여 부친에게 신권의 축복을 했으며 그 축복에서 그는 완쾌되리라는 약속을 받았다. 그 약속은 성취되었다.

전에는 핵 기술자였으나, 현재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인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위대한 힘, 즉 인간의 힘과 하나님의 힘을 목격했다. 그는 두 가지의 힘을 모두 존중한다. 그러나 인간의 힘은 유한하며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다.

“나는 주님의 힘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완전성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서 그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한 말씀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의 사랑과 연민, 그분의 자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짐이라도 그분은 들어주실 수 있으며,

“어떠한 마음이라도 그분은 정케 하시고 기쁨으로 채워 주실 수 있고

“누구의 삶이라도 그분은 깨끗이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참된 친구”, 성도의 벗, 1989년 1월호, 85페이지)

여러 해 동안 리차드 지 스코트는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가운데 주님에 대한 그의 신앙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완전한 친구—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고귀한 친구”—즉 몰몬경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십이사도 정원회에 들어왔다.

1928년 11월 7일 아이다호주 포카텔로에서 태어나 워싱턴 디시에서 성장한 리차드는 어려서부터 과학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의 부모인 케네스 리로이와 매리 엘리자 휘틀 스코트는 그와 그의 형제들에게 기술적인 것들을 탐구하고 실험하여 원리를 발견하고 만들고 수리해 볼 것을 격려했다. 그들은 아들들에게 자가용을 수리하는 것까지 맡겼다.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한다. “한번은 장난으로 자동차 배기구에 기차 경적기를 달았었습니다.”

그의 부친은 교회 회원이 아니었으며 어머니는 활동적인 회원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높은 성실성의 원리와 표준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리차드는 뛰어난 젊은이로서

“나는 주님의 힘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완전성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의
사랑과 연민 그분의
자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1987년 크리스마스 때 찍은 가족 사진.
 자녀와 손자들로 둘러 싸여 있는 스코트 장로
 부부 왼쪽은 딸 린다와 남편 몬트 미켈과 세
 자녀(좌측부터) 데본, 클링튼, 에밀리이고 뒤에
 서 있는 세 사람은 스코트 장로 부부의
 아들이다. (왼쪽부터) 케니스, 마이클, 데이비드.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딸 메리 리이다.

고등학교 때는 반장이었으며, 연주단에서 클라리넷을 연주했고 밴드부에서는 지휘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삶에서 뭔가 빠진 것이 있는 듯했다. 감독과 가정 복음 교사의 권유로 교회 모임과 활동에 참석하기는 했지만 그는 “때로 마지못해 가곤”했다. 어떤 이유에선지 그는 가끔 밖에 서서 안을 들여다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공부도 잘하고 다른 학생들이 좋아했지만 사교적인 면과 체육면에서 부족함을 느꼈으며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았다.

그것은 선교사로 나가 그러한 느낌을 덜어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으로부터 오는 복음에 대한 커다란 이해가 외로움에서 비롯되는 모든 공허함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하고 그는 말한다. “내가 참으로 복음을 이해한다면 나의 생활에서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요 미합중국 농림부 장관이었던 에즈라 태프트 벤슨은 워싱턴 디시에서 스코트 가족이 속해 있는 지역의 스테이크 부장이었다. 리처드의 부친은 농림부 차관으로 그를 도와 일했었다. 벤슨 대관장의 모범, “그분의 성실성, 헌신, 원리를 수호하려는 위대한 능력 등은 아버지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하고 스코트 장로는 말한다. “그들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벤슨 대관장님은 아버지의 개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침례를 받은 리처드의 부친은 벤슨 대관장을 초대하여 안수를 부탁했다. 그는 그의 아내와 함께 워싱턴 성전에서 인봉자로서 10년 이상을 봉사했다.

십대가 된 리처드는 대학에 가기 위해 스스로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했으며 돈버는 일에 뛰어난 모험 정신을 보여 주었다. 어느 해 여름에는 미국 동해안을 떠난 한 굴 채취선에서 일한 적도 있다. 또한 유타에 있는 숲에서 나무를 베는 일도 했으며 기차를 수리한 적도 있다.

어느 해 늦 여름에 유타 공원 서비스 호텔에 제출한 이력서는 모든 일자리가 채워졌기 때문에 거부되었다. 그는 거절 편지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유타를 향해 떠났다. 미대륙을 횡단하는 여행을 마친 그의 주머니에는 3센트뿐이었다.

그가 호텔에 도착하자 호텔 직원이 물었다. “우리의 편지를 못받으셨습니까?”

리처드는 대답했다. “받았지요. 그러나 좌우간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무불 자리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비웃었다. 리처드는 낮추어서 다시 물었다. “벨 보이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접시라도 닦지요?”하고 리처드가 말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다 그만두시오. 아무 일도 안 시키겠오.” 주머니에 3센트 밖에 없는 것을 안 스코트는 낙심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 “2주일 동안 접시를 닦겠습니다. 내가 일을 잘 못할 경우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면 머물러 있으면서 먹을 것은 해결하리라고 생각했다. 그 사람은 마침내 승낙했다.

리처드는 접시를 닦았다. 그러나 도울 것이 있을까 하고 부엌으로 가 보았다. 여름이 다 갈 무렵 그는 일류 요리사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대학에 가기 위해 저축한 금액에 더 많은 보탬이 되었다. 또한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잠시라도 쉬는 틈이 있으면 그는 물몬경을 읽고 생각했으며 영적으로 깨어남을 경험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워싱턴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했으며 기계 공학을 공부하고, 재즈 악단에서 클라리넷과 색소폰을 연주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 가까워 오면서 그의 인생의 계획은 모두 뜻대로 되는 듯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서는 나의 작은 세계에 지닌 왓킨스라는 폭탄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쾌활한 젊은 여성인 지닌은 유타주 상원의원인 아더 브이 왓킨스의 딸이었다.

진전되어 가는 그들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짜여진 리처드의 인생 행로에 문제를 던져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지닌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난 결혼을 한다면 귀환 선교사와 성전에서 할거예요.” 그는 선교 사업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그는 이전의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으며 감독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졸업을 하자마다 그는 우루과이로 선교 사업을 떠났다. 지닌은 이듬해 6월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다음날 미국의 북서부로 선교 사업을 떠났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오자 그들은 곧 맨타이 성전에서 결혼을 하였다.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리처드는 물몬경에 몰두했으며, 그의 간증의 기초는 더욱 단단해졌다. 그는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면 할수록 신앙이 강해지는 것을 발견했다.

한번은 한 가족이 그와 그의 동반자를 초청하여 그들을 개종시키려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교회가 가르치는 바를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이 집에 도착해 보니 다른 방문객이 와 있었다. 남아프리카 전역에 대한 책임을 진 다른 교회의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에 도전하고 반대했습니다. 나는 보잘 것없는 지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수호하라, 개종시키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 하는 와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는 후자를 택하기로 했습니다. 토론이 끝났을 때 집으로 돌아오면서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다. 나는 교회를 옹호하는 일에 실통치 못했으며, 복음에 대한 나의 지식은 내가 바라는 만큼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음날 그 가족은 다시 선교사를 초대했다. 그들은 전날 저녁 있었던 일을 미안하게 생각했으며 다른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장로들이 약속을 지킨 것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공부하기를 원했으며, 결국은 침례를 받았다.

리처드가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대학 교수는 그를 제지시키려고 애썼다. 그는 창창한 그의 앞길이 막힐 것이라고 했다. 우루과이에서 귀환한 지 몇 주 안되어 리처드는 하이먼 지 릭오버 대령(후에 제독이 됨)에 의해 핵 에너지가 관련된 극비 군사 업무에 관한 일자리를 놓고 면접을 받게 되었다.

면접은 리처드에게 실통치 않은 듯이 보였다.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그는 선교 사업에 관해 언급했다. “선교 사업이라니요? 당신의 선교 사업에 내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하고 릭오버 대령이 물었다.

리처드는 그에 대해 선교 사업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고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잠으로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선교 지역에서 성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질문에 과감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하고 그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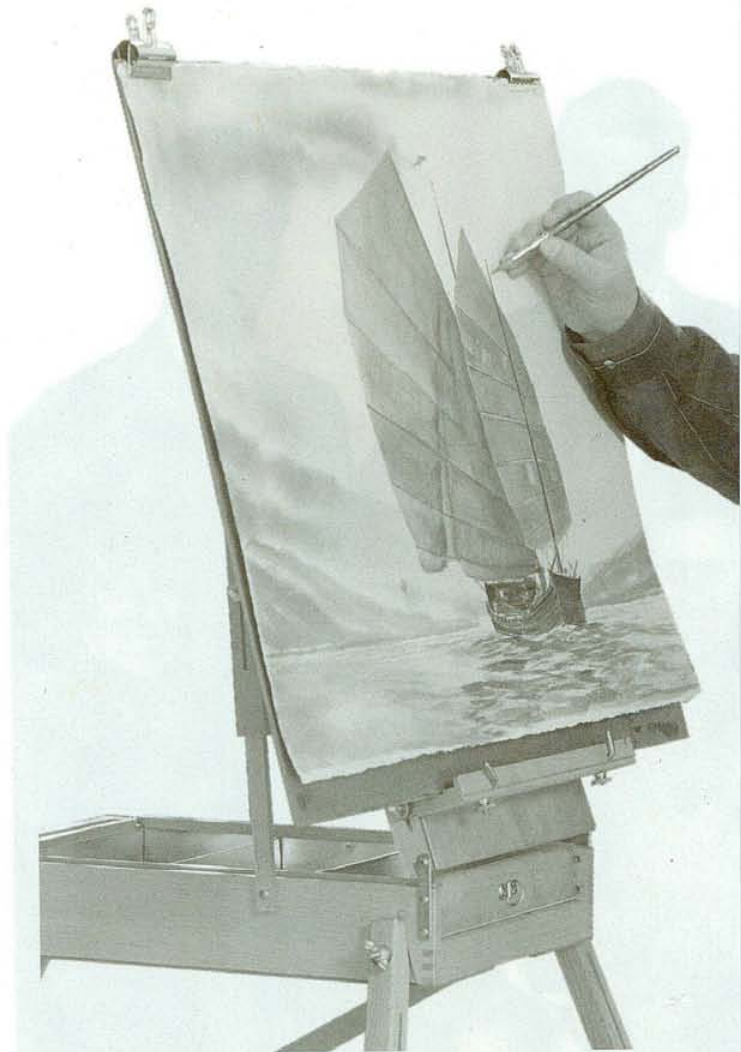
그러자 대령이 물었다.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 무엇이었어요?”

“물론경입니다.”하고 그는 대답했다.

면접을 마칠 무렵 그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리처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하고 대령이 말했다. “나는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을 옹호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았을 뿐이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리처드는 최초의 핵 잠수함인 노틸러스호의 원자로 설계 일을 맡게 되었다.

후에 인사 기록부를 검토하면서 그는 자신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말리려던 교수의 성명을 발견했다. 그 교수는 관리 단계에서 세 단계 정도 아래에 있었으며 리처드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있었다.

스코트 형제는 릭오버 제독을 위해 12년 동안 일했다. 1955년에 그는 테네시에 있는 옥크 리지 원자로 기술 학교의



핵 공학 분야에서 박사 과정에 해당되는 과정을 마쳤다.(일의 성격상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대학의 학위는 주어질 수 없었다.) 그는 또한 최초로 산업기지의 원자력 설비를 개발하는 일을 도왔다.

그동안 스코트 형제는 칠십인 정원회의 회장과 스테이크 서기로 봉사했다. 그리고 1965년, 그가 서른 일곱이 되었을 때 아르헨티나의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는 다시 한번 선교 사업과 인생의 경력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선교부장의 부름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강력한 권고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아무런 의문도 없었다. 설령 그것이 그의 경력에 큰 손해가 된다 해도 마찬가지였다.

선교부장으로서 그는 다시 한 번 물론경이 끊임없는 영감의 근원임을 알게 되었으며, 그는 지역 모임에서

스코트 장로는 가끔
수채화를 그린다.
“그것이 그분이 연중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에요.”라고 스코트
자매는 말한다.



선교사에게 권고할 때 그것을 늘 사용했다. 그는 영향력있고 동정심 많은 선교부장이었다. 그의 선교부에서 일했던 선교사인 웨인 엘 가드너는 먼 외딴 지역에서 봉사하던 중 대회를 위해 준비하라는 지명받았을 때를 이렇게 기억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갔습니다. 나는 우리가 만날 장소를 예약해 두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서 취소되었습니다. 공항에 그를 모시러 갔을 때 내가 늦어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택시 운전사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을 잊었으며, 그곳에는 다른 택시가 없었습니다. 일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장님의 눈에서 좌절의 빛을 보았지만 그는 팔을 나의 어깨 위에 얹고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내심과 이해심이 많았습니다. 나는 그때의 그 교훈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스코트의 가족이 선교 사업을 마치고 워싱턴 디시로 돌아왔을 때 스코트 형제는 텍오버 제독 밑에서 핵 공학에 관한 사설 전문 상담 회사를 운영하는 텍오버의 친구와 일을 하기로 했다. 그는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로 봉사했으며 후에 지역 대표로 봉사했다. 그 무렵 워싱턴 성전이 완공되었으며 스코트 부장 부부는 성전 개관식을 준비하며 많은 친구와 친지를 집에 초대하였다. 한 회사 동료와 그의 가족은 이웃 가족과 같이 침례를 받았다.

1977년 선교부장에서 해임된 지 8년 후, 리차드 지 스코트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부름받았다. 여러 해 동안 그는 신권과의 관리자로서 봉사했으며, 그후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의 집행 관리 역원으로 봉사했다. 그와 그의 가족은 6년간의 그 임무 지명 기간 동안 3년을 멕시코시티에서 살았다.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에 대한 스코트 장로의 큰 사랑은 다시 한 번 그들에게 봉사함으로써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그 사랑은 그들에 의해 되돌아 왔다. 사람들은 그를 지도자로서만이 아니라 친구로서 바라보고 대한다. 그는 인도하고 또한 기꺼이 배우고자 했다.

어느 일요일 멕시코시티에서 스코트 장로는 신권회 공과 시간에 앉아 공과를 듣고 있었다. 교사는 훌륭한 학자가 아니었으며, 그의 공과는 잘 다듬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교사는 주님과 그의 형제들을 사랑했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겸손히 소망했다. 신성한 느낌이 방안에 가득 했다.

공과를 들으면서 스코트 장로는 공과의 메시지가 주는 영적인 확신과 개인적으로 유익이 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는 더욱 효율적인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 내가 크게 필요로 했던 값진 진리를 얻게 되었다.” 아침 내내 그는 그의 마음에 스며들어 온 느낌을 계속해서 썼다. 그 경험은 반복되었다.

“나는 영의 속삭임을 받는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필요로 하고 긴박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는 느낌이 최초의 속삭임으로 올 때 그것을 기록해 두지 않거나 그에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부터 오는 개인적인 값진 지시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 본부로 돌아온 그는 현재 가족 역사과의 관리 책임자로 부름을 받았다. 일년 후인 1983년에 그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에 부름을 받았으며, 1984년에는 가족 역사과의 집행 책임자가 되었다.

그후 4년 동안 스코트 장로는 그가 일하는 분야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동 사항을 관리했다. 그 중에는 가족 역사 탐구에 문제가 되는 것을 컴퓨터 형태로 된 기술 방법에 적용시키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한 동향의 분명한 표시는 *계보*에서 *가족 역사*로 명칭이 바뀐 것이었다. 다른 변경 내용에는 조상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간소화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계보 전문가가 되도록 훈련시키고 조상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에 역점을 두던 것을 없앴으며, 전세계적으로 마이크로 필름 기록을 증가시켰으며, 가족 역사 센터를 국제화하고 중요한 기능을 본부로부터 분산시킨 점 등이 포함된다.

생애의 많은 시간을 기술 분야에서 종사해 온 사람은 그가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가족 역사 사업을 이야기하게 될 때 특별히 마음 설레이게 된다.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시아버님께서 개종을 하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조상들을 확인하여 그들을 위해 성전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는 시부모님과 함께 남편 쪽의 계보를 수집했습니다. 이제 컴퓨터와 함께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자못 궁금합니다.”

스코트 장로는 가족 역사과에서 취해진 변경에 대해 어떤 개인적인 치하도 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한 변화는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수립한 영감받은 장기적인 목표에 따라 취해진 것입니다.”하고 그는 말한다. “전임자들에 의해 훌륭하게 기초가 놓여진 뒤에 현재의 일을 맡게 된 것과, 경험이 풍부한 관리 책임자들과 헌신적인 관리 직원들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전에도 훌륭한 사람들과 일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헌신적이고 유능하고 충실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봉사한 적은 없었으며, 가족 역사과에서 이 특별한 경험을 하는 동안 이보다 더 영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느꼈던 적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깊이 관여해 있는 분야에 스코트 자매 역시 온전히 참여하고 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 딸은 이렇게 말한다. “아빠를 생각할 때면 어머니도 생각하게 돼요. 부모님은 한 팀으로 일하고 계세요.”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는 연차 대회에서 스코트 장로가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받은 것을 환영하면서 스코트 자매의 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는 영적인 권세 면에서 그에 못지 않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인 지닌 자매님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장례-경건한 시간”, 성도의 벗, 1989년 1월호, 20페이지)

스코트 장로가 아내의 성품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녀의 영성”이라고 그는 말한다. “아내는 가족을 생활의 중심으로 삼는 헌신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유능한 주부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즐깁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말한다. “사실 그래요. 우리는 가장 좋은 친구거든요.”

그 밀접한 관계는 곧 분명해진다. 유모어와 웃음은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진지해야 할 때와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할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농담을 하면서도 품위 있고 점잖다. 서로에 대한 그들의 애정과 서로의 필요 사항에 민감하게 반응함은 자녀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는다.

스코트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지닌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들에 대한 큰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것을 잘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춤추는 것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춤이라고는 잘 추지 못하는 데 이세는 멋지게 춥니다. 그녀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한번은 스테이크 활동에서 있었던 왈츠 경연 대회에서 우리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 왈츠는 우리가 처음 해 본 것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데이트를 하게 된 이래로 그들은 재즈 음악에 대한 관심을 서로 나누었다. 현재 그들은 남미의 민속 음악을 수집하고 즐겨 듣는다. 그들은 결혼한 후에 함께 해온 취미로 그림 그리기는 일도 무척 좋아한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 일을 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다.

스코트 장로가 기계를 좋아하는 이유로, 배관, 전기, 자동차 및 수리를 요하는 일에서 그는 가족의 수리공이다. 여러 해에 걸쳐 그는 현재의 거실을 설계하여 새롭게 넓혔다.

스코트 부부에게는 다섯 명의 자녀가 있다. 스페인에서 선교 사업을 한 매리 리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응용 어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 워싱턴 디스에서 일하고 있으며, 케네스는 텍사스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현재는 에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살고 있으며, 린다는

1960년대에 아르헨티나에서
선교부장으로 있을 때 스코트
장로는 남 볼리비아에 살고
있는 쿠에추아 인디언들
사이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남편 몬테 미클과 함께 세 자녀를 데리고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살고 있으며, 데이비드와 마이클은 대학에
재학중이다.

메리 리는 아버지와 딸 사이에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다. “저는 아빠에게 무엇이든 다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아빠는 이해하고 사랑하고 솔직하게 대해
주셨어요.” 여러 해 동안 여름이면 그녀는 워싱턴 디시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일을 했다.
그들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연차 대회의 말씀을 듣거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아빠와
엄마는 늘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녀는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해 준 신권
축복과 선교사로 가 있는 동안 보내 준 편지를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저에게 경전의 말씀과 같은 것이예요.”

스코트 부부는 결혼 초에 두 명의 자녀를 잃었다. 딸은
출산 직전에 죽었으며, 6주 후에 두 살된 아들은 심장
수술을 받다가 죽었다. 스코트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신앙을 강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슬픔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스코트 장로의 생애에서 기쁘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고통스러운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세주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에 그 원인”이 있다고 그는 말한다.
“우리가 그의 가르침 대로만 산다면 그는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고통과 외로움은 얼마나 쉽게 거두어지겠습니까?”

1988년 9월 29일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은유함과 사랑과 큰 이해로써”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를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르셨다.
스코트 장로는 이를 뒤인 10월 1일에 지지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스코트 자매와 나는 부름을 받은 뒤
진지하게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그 부름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압니다. 나는 현재의 나 자신과 앞으로 내가 되어야
할 인물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 때 겸손해짐을 느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지지와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아무도 이 임무를
수행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목적: “여호와와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민수기 15 :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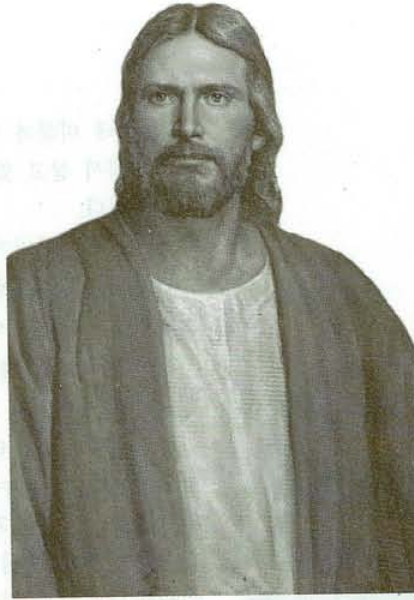
젠슨 자매는 어떤 어려운 문제에 당면해 있었다. 그녀는 도움과 평화로운 마음을 받기 위해 기도드렸으나 응답이 천천히 오는 것 같았다. 특별히 절망스러웠던 어느 날 그녀는 기도를 하는 중에 이렇게 외쳤다. “오 하나님, 제가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어찌하여 당신은 제게서 멀리 떠나 계시옵니까?”

그녀는 이렇게 회상한다. “그때 나의 마음에는 고요한 조그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언제 너를 잊었느냐? ...내가 그곳에 있지 않았었느냐?’ 갑자기 나는 나의 생애에서 여러 번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며, 나에게 대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느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지 않은 것은 바로 나였습니다.”

때로 우리는 모두 젠슨 자매와 비슷하다. 문제에 대한 고뇌로 인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고 사랑하심을 항상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다.

때로 우리는 일상 생활의 활동이 바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항상 그분을 기억”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분에 대해 자주 생각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다.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우리는 과거나 현재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보이신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 감사드릴 수 있다.

시련을 겪을 때 우리는 축복을 기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성도들의 생활은
의미있는 신앙의
표출이며 예배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증거가 최근 들어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분이 우리를 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엘마 이세가 했던 것처럼 그와 다른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예전의 축복을 돌이켜볼 수 있다. (엘마서 36 : 27~29 참조)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여러 번 축복해 주셨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할 때,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우리 주변에 악의 영향이 가득한 오늘날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구세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따를 필요가 있다. 힐라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를 세울 기초가 되실 이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반석이신 구세주임을 기억하고 다시 기억할지이다.” (힐라멘서 5 : 12)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초”로 삼는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없고 참아낼 수 없는 시련이 없을 것이다.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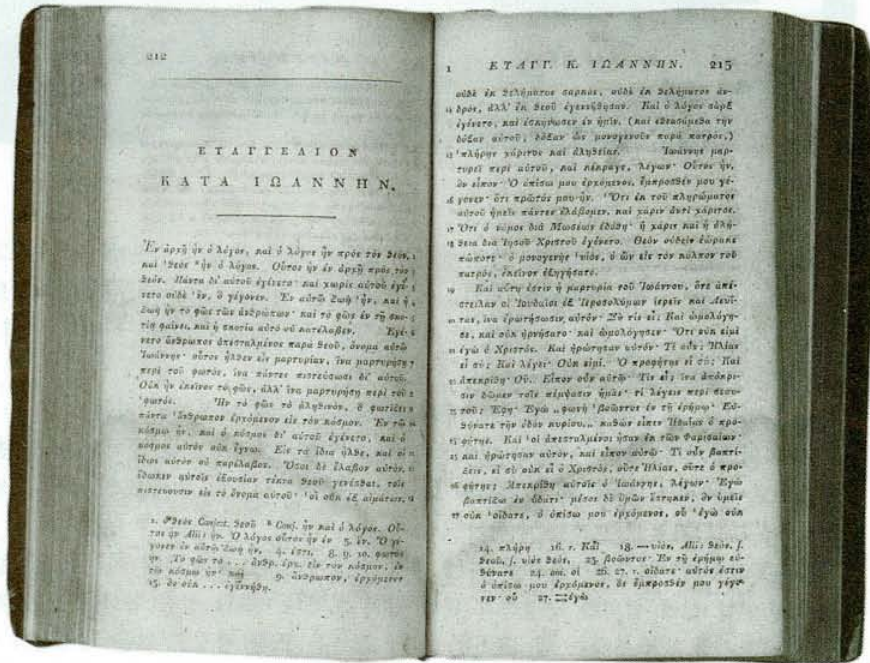
1.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가 특별한 시기에 주님께서 어떻게 도움을 주셨는지 그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

2.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구세주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하고 자매들에게 의미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격려한다.

(가정의 밤 자료집 2, 4, 6~7, 9~14, 16, 26, 31과 참조)*

성경 번역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언어 수 : 3,243개

조셉 지 스트링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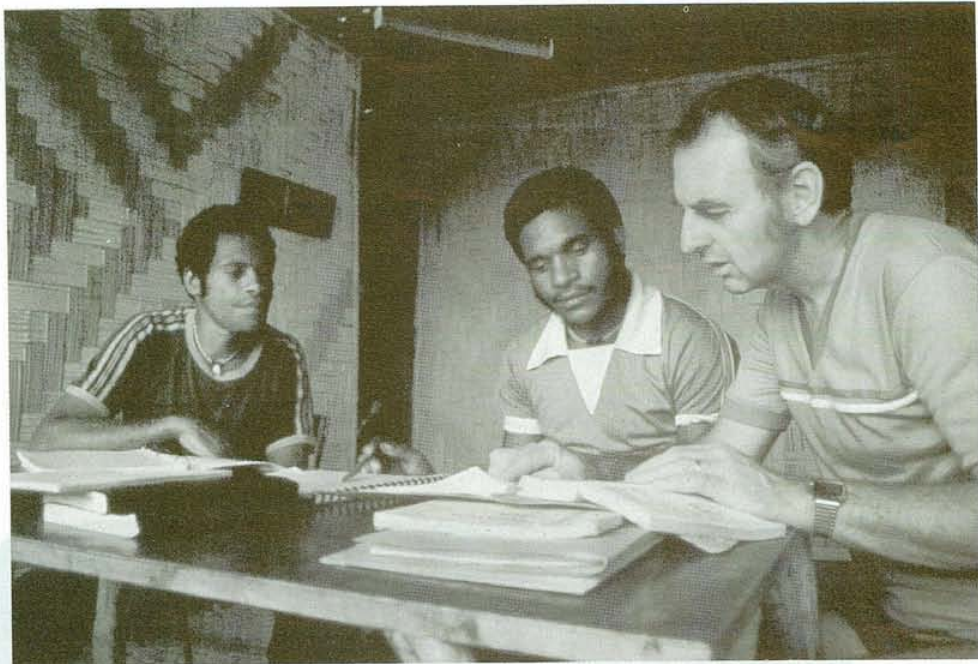


금년도의 교회 학습 과정은 구약전서이므로 성경이 지상의 얼마나 먼 곳까지 전해져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나는 마땅히 성경을 잘 알아야 하나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 나는 가끔 성경을 읽을 때 예언자와 구세주께서 나 자신이 쓰는 언어 이외의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쉽게 잊는다. 잠시 그 일을 생각하면 나는 번역에 종사했던 영감받은 많은 학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구약을 히브리어로 읽고 신약을 희랍어로 읽어야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 말일성도들은 성경 번역사에게 많은 것을 빚지고 있다. 우리 선교사들이 이미 성경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시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성경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충분한 복음을 받아들일도록 준비하는 데 절대로 필요한 단계다.

성경은 310개의 언어로 인쇄되었다. 우리 대부분은 세상에 그토록 많은 언어가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 아니다. 신약전서는 그외의 695개의 언어로



파푸아 뉴기니아에 있는 이들과 같이 성경 번역사들은 가장 간단한 성서 언어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익숙한 단어들 사용 필요를 느낀다. (사진 위클리프 성경 번역사들)

인쇄되어 있다. 그리고 적어도 성경 중에서 한 권 대개 복음서 가운데 하나는 그외의 902개의 언어로 번역, 출판되어 있다. 이 1,907개의 언어로 세계 인구의 97퍼센트가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 책 가운데 적어도 한 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번역 업무의 대부분은 지난 삼십년 동안에 이루어졌다.

성경 번역의 신장은 지난 세기에 시작되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기독교에서는 서로간에 협력도 없이 이루어진 자신들의 번역본을 갖고 있었다. 금세기에 들어서 성경 번역본을 출판하고 배부하기 위해 많은 협조와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모국어 쓰는 본토인을 번역자로 삼으려는 추세가 강했다.

대부분의 국가에는 성경을 배부하는 성경 협회가 있다. 1946년에 여러 국립 성경 협회가 연합 성경 협회를 구성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 연합 성경 협회는 모든 기독교에서 성경을 출판하고 배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들은 또한 성경 번역을 시작하기 원하는 지역 교회와 상담도 한다. 이 상담자들, 때로는 번역자가 되어 주기도 하는 그들은 회랍어와 히브리어도 알고 있다. 연합 성경 협회는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에 있는 중요한 의미를 한 단씩 설명하고 개념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다른 단어로 대치하여 써서 그 내용을 출판해 내기도 한다.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여러 기독교 종파들은 연합 성경 협회의 도움을 얻어 함께 번역 작업을 하기도 한다.

(오늘날 가장 큰 성경 후원 조직은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어티이다. 가장 오래된 협회는 아니지만 기부자들만도 백만이 넘고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는 자원자도 50,000명이 넘는다. 그것은 새로운 번역을 제공하는 주요 자원의 역할을 한다.)

은 세상 인구의 97퍼센트가 성경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로서 성경의 일부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성경 전부를 번역하고 그후 은 세상에 전하기 위해 나머지 소수의 언어의 번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세상에는 대략 5,150개의 언어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방언은 제외) 이미 번역이 시작된 1,907개 언어를 빼면 3,243개의 언어가 남는데 그것은 소수의 인원만으로 된 그룹이 세계 도처의 오지에서 사용하는 언어로서 은 세상 인구의 나머지 3퍼센트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들 언어 가운데 대부분은 문자가 없는 구전 언어일 뿐이다. 그러나 많은 번역사들은 성경이 결국은 알려져 있는 모든 언어로 번역되리라는 것을 믿는다.

그 일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성경을 공식적인 국가 언어와 무역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지역 언어로 보급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지 않겠는가?

한 가지 대답은 교리와 성약에서 얻을 수 있다. “진실로 그 음성은... 온 세계와 세상의 모든 구석까지 퍼져 가야만 하며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만 하니...”(교성 58: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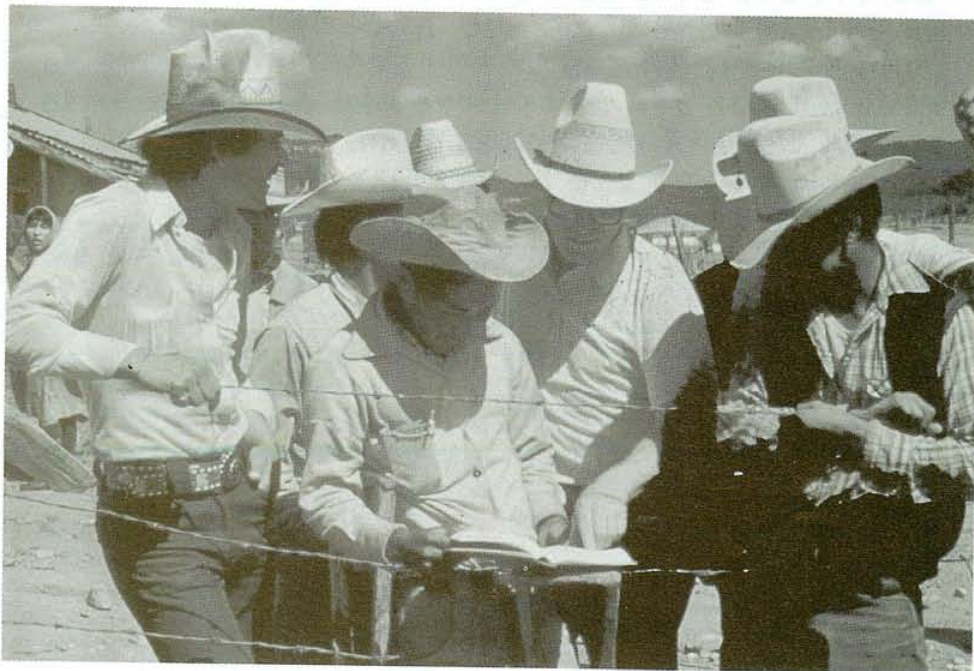
성경 번역사인 리리안 호울랜드는 나에게 또다른 훌륭한 대답을 주었다. “교회가 부모를 돕는다는 말일성도의 개념 이외에도 경전을 모국어로 가져야 하는 또다른 중요한 이유는 개종에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그들이 주 중 6일 동안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말을 해야 한다면 그들은 종교적인 행동 또한 같은 방법으로 키워 나갈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는 일주일에 하루에만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하루만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하루만 기도를 할 것입니다. 언어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모국어로 경전을 갖는 것은 우선 자신의 구원과 매일의 성장을 위한 것이며, 그 다음이 가족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자를 도와 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사의 제언에 따라 나는 실험을 해 보았다. 나는 모국어인 영어가 아닌 제2 외국어로 일주일 동안 경전을 읽기로 했다. 나는 일주일 동안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성경은 너무나도 재미없었기 때문에 한번 놓으면 다시 집어 들 수가 없었다. 읽기도 힘들거니와 어려운 언어 구성으로 의미를 알수 없었다. 나는 경전에 대한 이해가 자유롭게 읽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경험을 한 후, 나는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성경이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비용을 생각해 보자 성경을 하나의 언어로 번역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50만불이 넘는다. 그러한 가격으로,

성경 번역은
사람들에게 충만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비시키는 과정에서
실수적인 단계이다.
번역사가 멕시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스페인어로 번역된
성경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언어로 된 성경은 한번으로 효력을 보아야 한다. 그것은 처음에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거의 모든 언어가 독특한 면에서 다른 언어와 다르다. 예를 들어 영어는 히브리어나 희랍어와 비슷해서 그 모두는 사건을 시간의 순서대로 말해 준다. 그러나 페투의 야구어 같은 어떤 언어에서는 지역과 거리의 순서로 사건을 말해 준다. 문장의 부분 부분을 전에 혹은 그때라는 단어로 연결지어 주는 대신 번역사는 그곳으로부터 또는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와 같은 구를 사용해야 한다.

번역사들은 번역을 시작할 때 많은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열의로 가득 찬 선교사들은 이따금 그들이 유창하게 읽고 쓰지도 못하는 언어로 번역을 했었다. 과거에 어떤 번역들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 히브리어나 희랍어 대본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번역본을 근거로 했었다. 번역사들은 또한 자신들의 교회 및 문화적인 믿음에 의해 대본에 있는 의미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게 해서 안된다.

또한 번역사들은 독자들의 배경도 고려해야 한다. 한 무리의 번역사들은 파푸아 뉴기니의 고지에 있는 우카롭파에서 그들이 한 일에 대해 보고했다. 그들은 원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이사야 1장 18절은 죄를 붉은색에 그리고 용서를 흰색에 비유했으며 흰색은 눈과 양털을 예로 들었다. 그 부족의 사람들은 붉은 것과 흰 것은 보았지만 눈이나 양털은 본 일이 없다. 번역사는 다음과 같이 해결했다. “네 죄가 주홍같이 지라도 코카투(큰 앵무새, 대개 흰색임)의 깃털처럼 희게 될 것이요,”

필리핀에 있는 어떤 번역사는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다. 그는 요한복음을 번역하여 인쇄한 뒤 그가 함께 있던 부족에게 몇 권을 주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것을 읽지 않았다. 조사한 끝에 그는 그 원주민 언어에는 이야기를 서술하는 데 두 가지 형태가 있음을 알아냈다. 하나는 허구를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실화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번역사는 허구적 형태를 사용했던 것이다. 그는 다른 형태로 번역을 다시 하였으며 새로운 번역은 성공을 거두었다.

언어 선택을 잘못했던 불행한 경우는 미 알래스카주의 인디언어인 틀린기트어로 시편 23편을 처음 번역했을 때였다. 그 번역의 내용은 이렇다. “주님은 나의 염소를 치는 자니 내가 그를 원치 않으며 그가 나를 산으로 끌어 올리시고 바닷가로 끌고 가시는도다.”

한 언어와 문화를 다른 언어와 문화로 옮기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거나 완벽한 번역이란 있을 수 없다. 요셉 스미스가 신앙개조 제8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확하게 번역된 한”이라는 제한은 어느 때나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 번역에는 영과 인간의 언어 사이에 동반자적 관계가 있다. 번역은 영을 전달하고 그 대신 영은 인간의 언어가 지닌 결함을 보충해 준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명하셨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해 주실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있다. (마태복음 28 : 18~20; 마가복음 16 : 15 참조) 주님께서는 그가 인간과 대화하시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계명은 나의 것이요, 미약한 나의 종들에게 저희의 말로 준 것이니, 이는 저들이 이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교성 1 : 24)

· 조셉 지 스트링렘은 교회 본부 번역부의 언어학자로서 유타주 바운티풀에 있는 발베르다 제6와드의 선교 책임자이다. *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사람들”

성경 번역의 선구자의 한 사람으로 윌리엄 카메론 타운센드가 있었다. 1917년 타운센드는 당시 스물 한 살의 나이로 중앙 아메리카에서 성경을 파는 일자리를 얻었다. 과테말라의 정글에서 그는 실제로 각치켈 인디안을 만났다. 그들에게 스페인어로 된 성경을 팔 수는 있었지만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스페인어는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는 공용어였으나 스페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각치켈 인디안은 거의 없었다. 그들의 언어는 문자로 쓰여진 적이 없었다.

한 원주민이 타운센드에게 물었다. “어째서 당신의 신은 우리 언어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는 그에게 할 말이 없었다. 타운센드는 계약 기간을 채운 뒤 각치켈 말을 배웠으며 그것을 쓰는 방법을 개발했다. 그런 다음 그는 신약전서를 번역했다. 번역하는 데 12년이 걸렸으나 그 번역은 그들에게 성경에 대한 존경, 소망 및 사랑을 심어 주었다. 그것은 또한 카메론 타운센드의 필생의 사업이 되었다.

1934년 알칸사스에 있는 한 농가에서 타운센드는 후에 하기 언어 학원이 된 모임을 시작했다. 첫째에 두 명으로 시작한 그 학원은 3천 명 이상의 언어 연구생을 갖게

되었으며 조종사, 라디오 기술자, 간호원 및 교사 등과 같은 기술인력을 훈련시켰다. 두 명이 한 팀이 되어 번역사들은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언어를 배우고 사람들에게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며 원주민과 한 팀이 되어 신약전서를 번역한다. 그렇게 하는 데 만도 12년이 걸린다.

대부분의 연구생들은 구약전서까지 번역하기 위해 20년을 머문다. 한 언어학자가 성경을 두 개 언어로 번역하는 데는 일생이 걸릴 수도 있다.

연구생들은 부족에게 접근하려다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그들은 첩자라는 죄명으로 총살을 당하기도 했다. 여러 종류의 질병으로 죽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고립된 채 원시적으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번역사들은 그들을 찾아 떠난다.

우리는 성경 번역사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해야 한다. 지금도 명석하고 이기심없는 번역사와 그들의 가족이 사막과 정글에서 때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고 있다. 친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그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필요하다.*

교회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흥미있는 질문에 대한 지침으로 소개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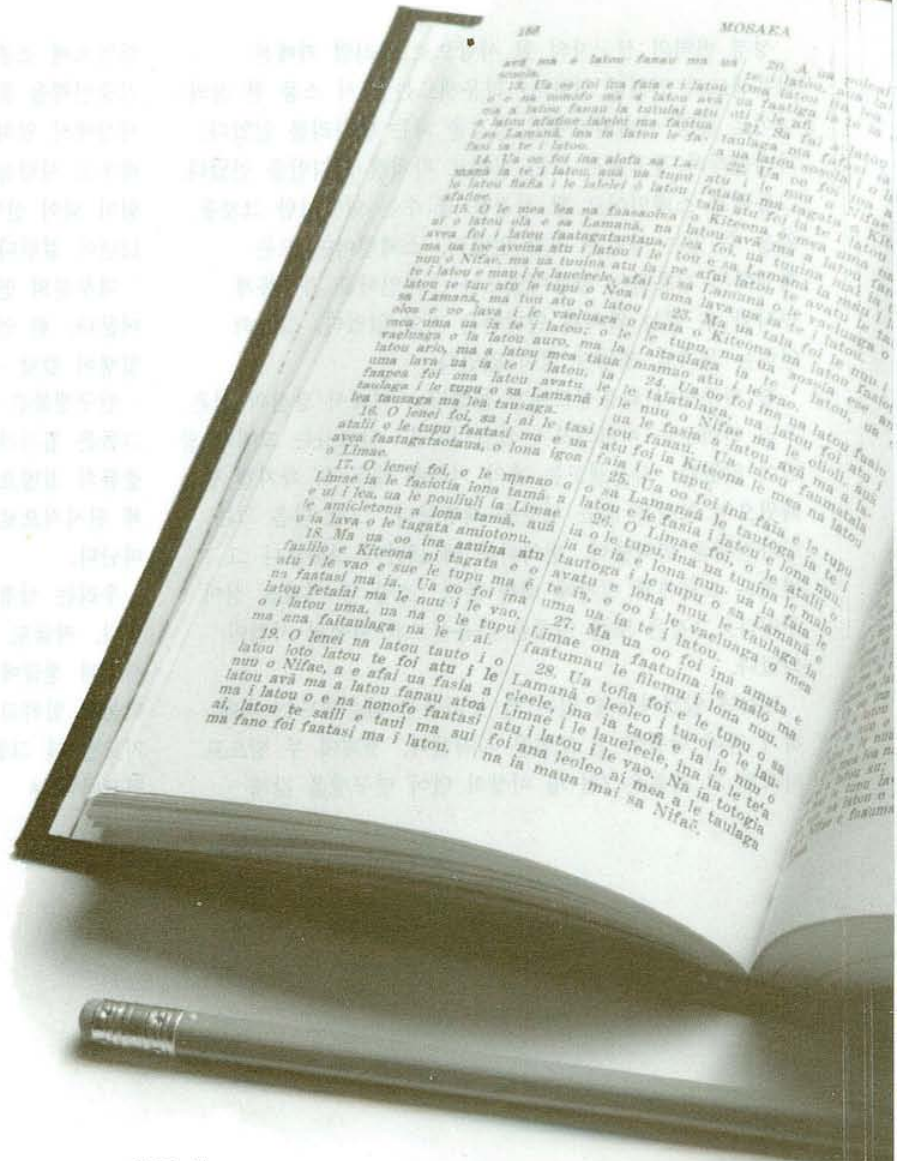
나는 정규적으로 경전을 공부하지만 배우는 것도 없고 발전하는 것 같지도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실제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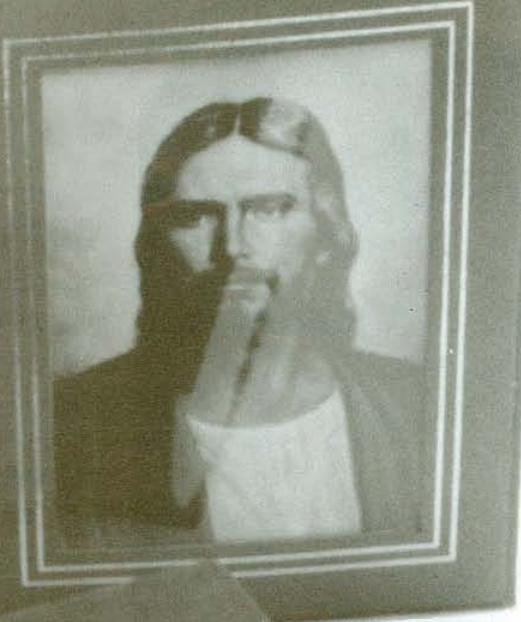


로저 케이 테리
브리감 영 대학교
경영 대학

우리는 평소엔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가르침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공부하고 성구를 진후 참조해 보고 예언자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강한 간증을 듣거나 무릎을 꿇고 진지한 기도를 드리고 나면 더 높은 차원의 학문에 관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텅빈 메아리를 듣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예언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배웠을까 하는 의아심이 갑작스럽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실만은 나에게

나는 영적으로 거듭남에 관한 교리를 공부할 수 있지만 마음에 큰 변화가 있음을 느끼고 자신이 성도가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됨을 느끼지 않는다면 나는 거룩함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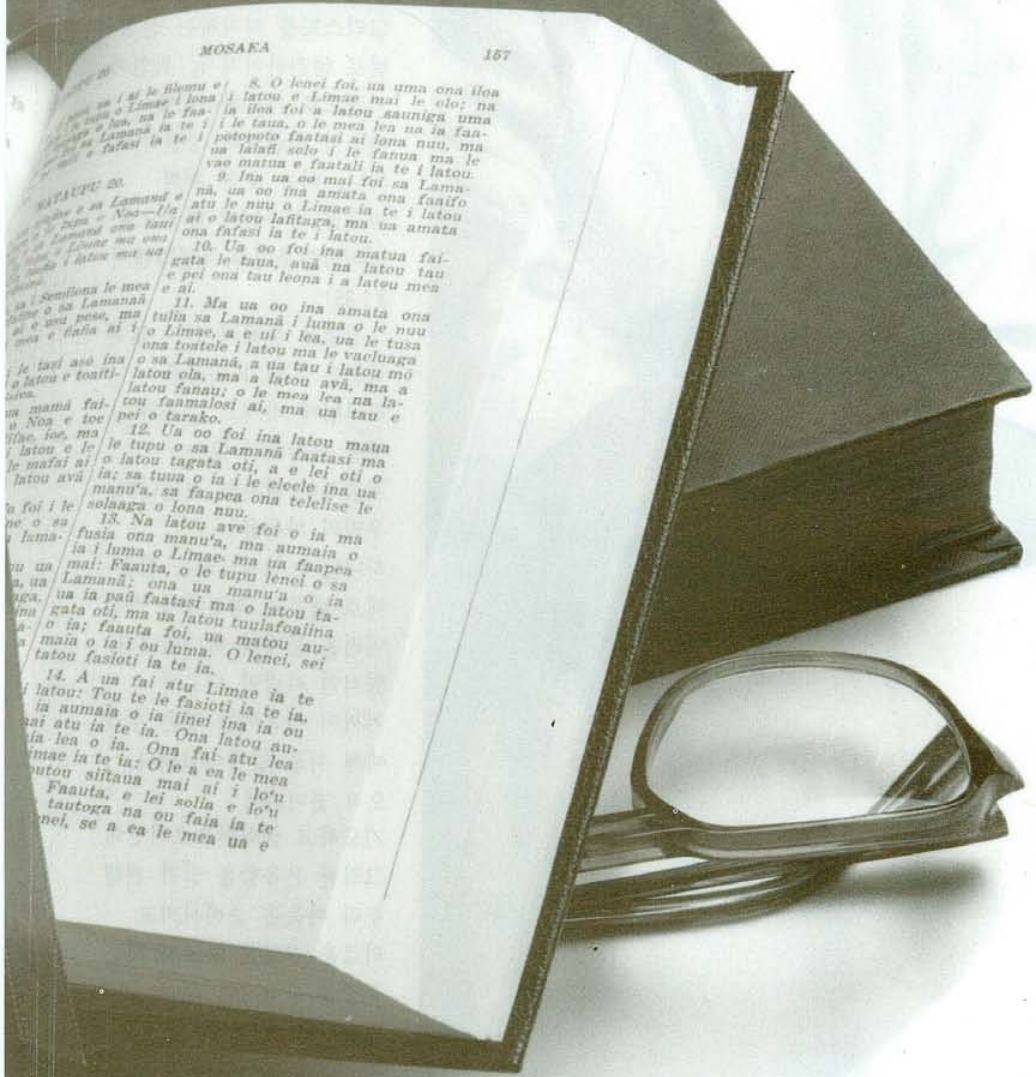


분명합니다.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 참된 발전은 복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때 경험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새로운 언어의 문법과 단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훈련과 노력을 통해 나는 정확한 발음과 액센트를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실제로 대화를 나누고 들어보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참으로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의 사람들과 더불어 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만이 나는 그 언어를 이해하게 됩니다.

색과 빛의 논리 또는 사각의 역학, 즉 신경과 세포가 보이는 물체를 두뇌에 전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맹인이라도 전문가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고 이해하는 것과 맹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무언가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하여 지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심지어는 교리의 원리를 상당히 잘 이해한다고 해도 실제로 복음을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에 있어서는 대학에서의 전공보다도 경험이 절대적인



8. O leni foi, ua uma ona iloa i latou e Limae mai le olo; na ia iloa foi a latou sauniga uma i le taua, o le mea lea ua ia faapoto faatasi ai lona nuu, ma ua lafaia solo i le fanua ma le vao matua e faatallia te i latou.

9. Ina ua oo mai foi sa Lamanā, ua oo ina amata ona fanifo atu le nuu o Limae ia te i latou ai o latou lafitaga, ma ua amata ona fafasi ia te i latou.

10. Ua oo foi ina matua faigata le taua, auā na latou tau e pei ona tau leona i a latou mea e ai.

11. Ma ua oo ina amata ona tufia sa Lamanā i luma o le nuu o Limae, a e ui i lea, ua le tusa ona tostele i latou ma le vaoluaga o sa Lamanā, a ua tau i latou mo latou oia, ma a latou avā, ma a latou fanau; o le mea lea na latou faamalosi ai, ma ua tau e pei o tarako.

12. Ua oo foi ina latou maua le tupu o sa Lamanā faatasi ma o latou tagata oti, a e lei oti o ia; sa tuua o ia i le elele ina ua manua, sa faapea ona telelise le solaaga o lona nuu.

13. Na latou ave foi o ia ma fusia ona manua, ma aumaia o ia i luma o Limae, ma ia faapea mai: Faauta, o le tupu leni o sa Lamanā; ona ua manua o ia ua ia paū faatasi ma o latou tagata oti, ma ua latou tuuilaofaina o ia; faauta foi, ua matou aumaia o ia i ou luma. O leni, sei tatou fasioti ia te ia.

14. A ua fai atu Limae ia te i latou: Tou te le fasioti ia te ia. ia aumaia o ia leni ina ia ou fai atu ia te ia. Ona latou aumaia o ia. Ona fai atu lea i latou: O le a ea le mea matou siltaua mai ai i lo'u faauta, e lei solia e lo'u tautoga na ou faia ia te leni, se a ea le mea ua e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신앙이란 내가 그것을 행사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개인적인 의로움을 통해 신앙을 키우지 않으면 개념에 불과합니다. 그런 다음에 신앙은 힘, 즉 힘의 원리가 됩니다.

나는 회개에 대하여 알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속주로서 나의 죄를 깨끗케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심에 대한 증거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분의 속죄의 희생을 취하고 나의 죄가 실제로 용서받았음을 느낄 때 나는 참으로 회개와 용서를 이해하게 됩니다.

나는 영적으로 거듭남에 관한 교리를 공부할 수 있지만 마음에 큰 변화가 있음을 느끼고 자신이 성도가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됨을 느끼지 않는다면 나는 거룩함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신과 개인적인 계시에 관해 공부한다 해도, 영원한 원리에 따라 생활하고 성령의 면전에서 합당하게 되지 않으면, 나는 그 성스러운 인도와 함께 하심의 평화로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과 물에 대해 이야기한다 해도, 그것을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확신과 권능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높은 차원의 학문이란 늘 경험을 통해서 오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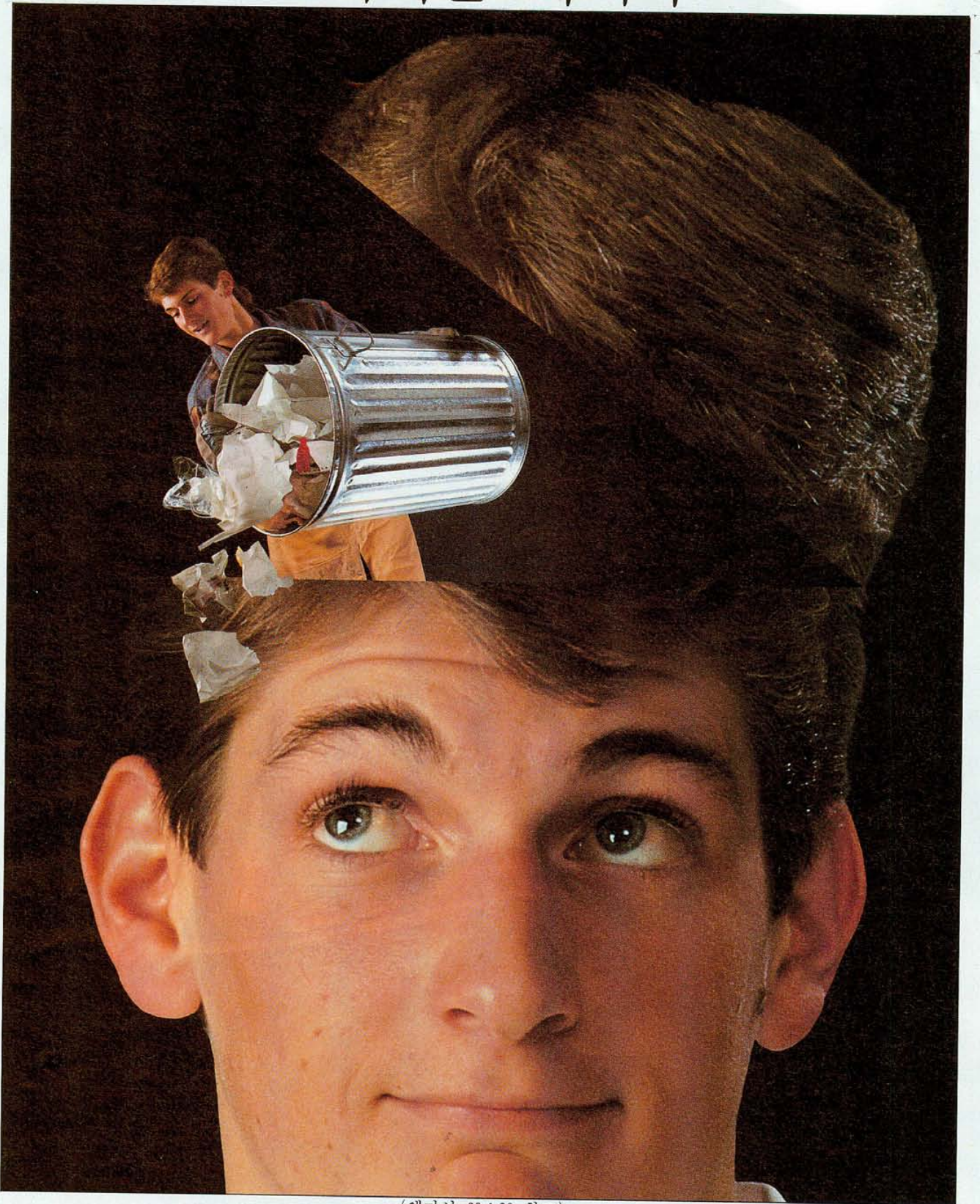


어떻게 올바른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것을 마음의 문제, 즉 순종과 헌납의 문제로 믿습니다. “보라 주는 진심을 구하시며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나니,”(교성 64 : 34) 심한 박해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에 관해, 말하면서 몸몬은 그들의 영적인 축복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고난을 받는 무리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여 겸손한 중에 더욱 강하게 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이 날로 굳건하여져서, 위안과 기쁨으로 가득하여지며 마음이 청결하며 성결하게 되니, 이는 오직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았음이라.*”(히라맨서 3 :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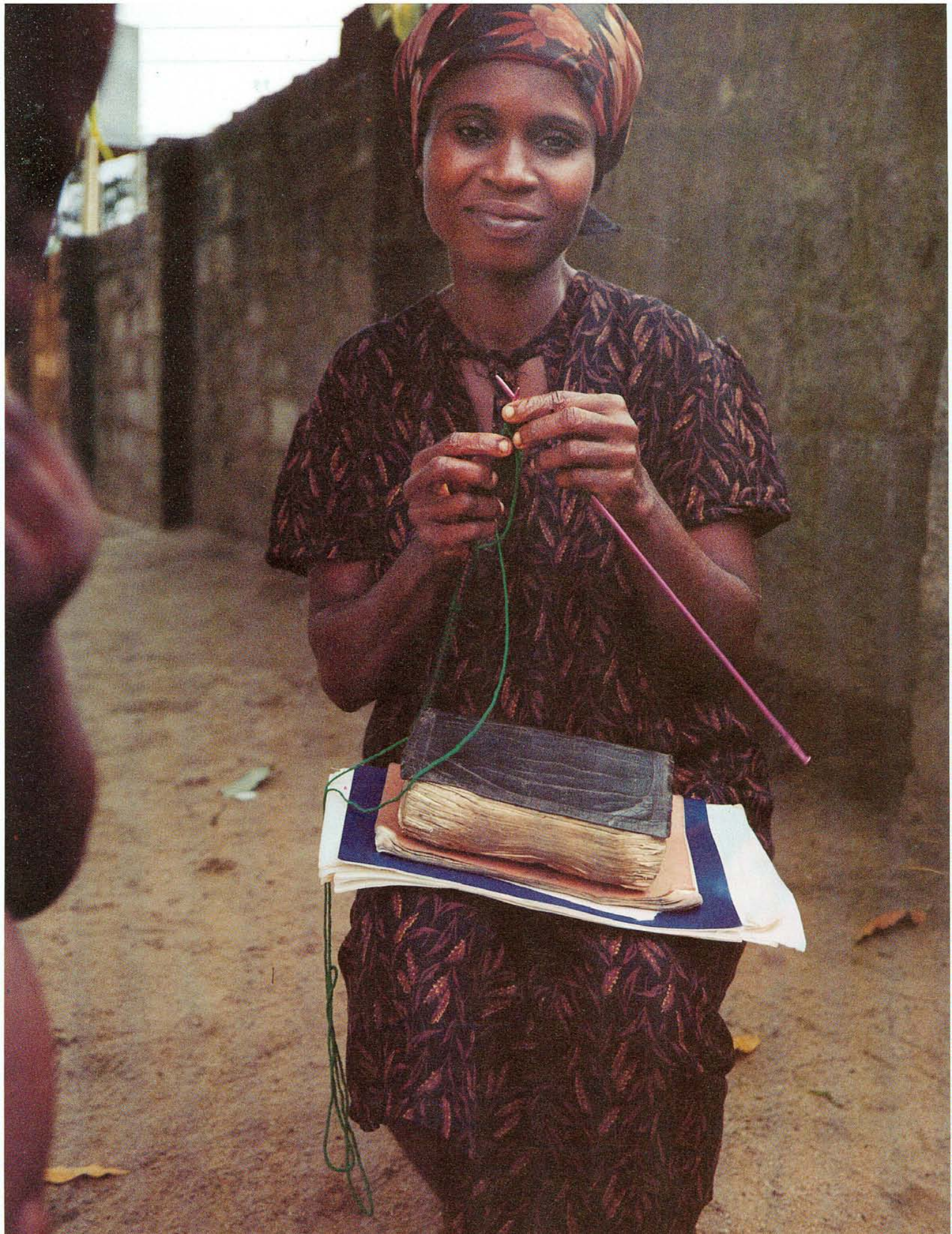
경험을 통해서 얻는 많은 학문은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분의 뜻을 행함에서 오는 직접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것은 때로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기꺼이 마음먹는 것은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진지하게 기도하고 금식함으로써만이 그러한 온유함을 얻기 위해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고 의로운 경험을 하고자 하는 소망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

물론 메시지

“쓰레기는 버리자!”



(엘마서 60:23 참조)



에케티의 세계

앤 레플렌

나이지리아의 한 자매는
나에게 참된 봉사와 기독교 정신에 대해
얼마나 훌륭하게 가르쳤는가?

나는 이년 반 동안 나의 이웃에 살아온 에케티라는 친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그녀는 아프리카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이지리아의, 비가 많이 내리는 열대의 숲에 살고 있다. 우기가 되면 에케티의 집은 무성한 푸른 관목에 둘러싸이게 된다. 야자 나무가 수평선을 장식하고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황홀한 일몰을 연출한다. 덥고 건조한 계절이 되면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태양의 뜨거운 광선을 차단하는 고운 모래 먼지를 안개처럼 몰고 온다.

에케티는 나보다 두 살이 위이다. 그녀는 여학생때 열 살이 위인 액판과 결혼했다. 에케티는 열 넷이나 열 다섯 살 쯤 되었을 때 첫 아기를 낳았다. 에케티는 여덟 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그중 다섯이 살아 남았다. 그 가족은 몇 년 전에 교회에 입교했다.

액판은 직업은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잡일을 해주고 물건을 고쳐 주는 일을 한다. 그는 자존심있고 부지런한 사람이며 좋은 남편이요, 아버지이다.

에케티는 대나무 기둥 사이에 붉은 진흙을 발라 만든 좋은 집에서 지낸다. 초가 지붕은 열대 지방의 폭풍으로부터 그녀의 가족을 보호해 준다. 내부는 단단하게 다져진 흙바닥이며, 네 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다. 부엌은 집에서 분리되어 있다.

세계의 많은 지역이 그렇듯이 에케티가 사는 지역에도 전기가 없다. 에케티는 불을 지펴 요리를 하고 강에 나가 빨래를 하며 숲이 담긴 다리미로 옷을 다린다.

에케티의 하루는 일찍 시작된다. 그녀와 아이들은 집에서 멀지 않은 강가에서 그날 필요한 물을 길어 온다. 일주일에 여러 번 그들은 뿔나무를 하러 숲으로 간다. 그들은 나무를 단으로 묶어 머리에 이고 온다.

에케티의 가족이 먹는 대부분의 식량은 마을 밖에 있는 여러 개의 작은 농장에서 온다. 에케티는 카사바, 양, 바나나, 플랜타인, 파인애플, 붉은 고추 및 여러 종류의 수프를 만드는 데 쓰이는 채소를 재배한다.

에케티와 그녀의 가족은 행복하며, 그들은 훌륭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에케티를 만난 것은 트레서 리서치 기금으로 마을의 보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을 때였다. 그 기금의 후원자들은 미개발국 또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어린이 건강에 관한 조사 사업을 하고 있었다. 나의 동료와 나는 건강 교실을 열어 마을에서 영양, 위생, 개인 위생 및 가정 건강 관리 등과 같은 기본 건강 원리를 가르칠 자원 교사들을 훈련시켰다. 그 교사들은 비슷한 내용을 가정과 학교, 교회 및 마을 회당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가르쳤다.

나는 어느 무덥고 후덥찌근한 저녁에 발전기로 돌리는 천정에 달린 선풍기 아래서 방금 받은 최근의 신문들을 읽고 있었다. 나는 우리의 가정에서 돈을 절약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들을 제언해 놓은 페이지를 읽고 있었다. 그러한 아이디어에는 전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 끄고, 식품은 많이 구매하여 작은 통에 넣어 냉동시키며, 기저귀는 일회용보다는 천으로 만들어 쓰고, 장거리 전화 요금을

에케티는 나에게
자기에게 허락된
수입의 한도 내에서
가정을 깨끗하게
정돈하라는

상호부조회 공과
시간에 배운 원리를
어떻게 따랐는지를
기꺼이 보여주었다.

즐이기 위해 편지를 보내며, 아무 때나 음식물을 사지 말라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제인들은 분명 실용적인 것이었지만 당시 내가 있었던 곳이 아닌 다른 세계에서나 적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와 에케티의 세계에는 큰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는 그 무엇이 있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기독교 정신이었다.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데 방법을 결정해 주기는 하지만 기독교 정신이 그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기독교 정신은 피부 색깔이나 인종, 돈을 버는 방법 또는 시장에서 무엇을 사느냐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것은 기후나 지리적 위치에 결정되어서도 안된다.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나는 기독교 정신에 대하여 전보다 더 단순한 정의를 내리게 되었다. 나는 기독교 정신을 사랑 또는 자비로써 가장 높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강한 형태의 사랑,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구제 또는 자비의 행동을 하게 하지만 자선 사업과 같은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 정신이란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고 기독교인임을 실천하는 곳이다. 그러나 교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도서관에 앉아 있다 하여 학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참석은 단순히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과 기회를 나에게 줄 뿐이다. 기독교 정신은 나에게 내가 하나님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갖는 관계에 대해 가르쳐 준다. 그러한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사랑, 희생, 신앙, 회개, 자립 및 헌신 등과 같은 원리는 보편적인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이러한 원리가 프로그램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가를 배웠다. 서방 세계에서는 미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약품이 보급되고 트랙터가 수입되고 식량이 분배된다. 프로그램은 시급한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은 되지만 때로 그 뒤에 있는 원리가 무시되곤 한다. 내가 만일 식량 비축이나 가족 역사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만 역점을 둔다면 그러한 것이 훌륭하고 중요한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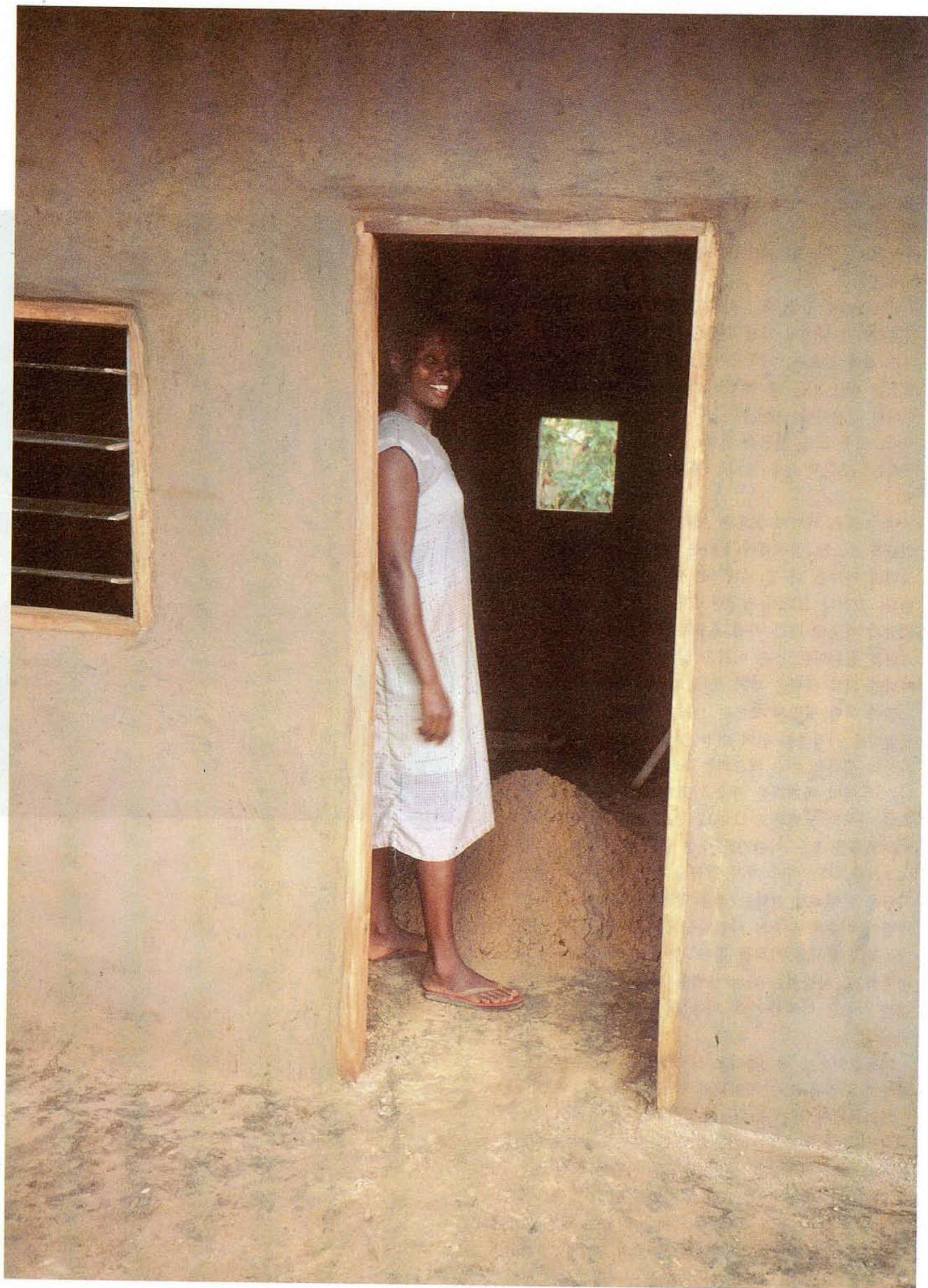
에케티에게 크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에케티와 나는 신앙, 사랑 및 자립 등과 같은 영원한 원리에 대한 믿음의 넓은 기반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를 실천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웠다.

나는 그 지역 지부의 상호부조회에 참석한 뒤 원리를 가르쳐야 할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교재에 있는 공과는 우리의 가정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해 준다. 공과 교재에 있는 사진들은 잘 정돈되고 가꾸어진 미국의 가정을 보여 준다. 우리 교사는 서구 스타일에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아 한원들에게 사진을 보여 줄 때 거꾸로 들고 보여 주었다.

몇 주일 후에, 나는 에케티의 집을 찾아갔다. 그녀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진흙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공과에서 영감을 받은 에케티는 집안을 청소하는 중이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가재 도구를 끌어 내놓고(전부라야 얼마 되지 않았다.), 그녀는 벽과 바닥에 진흙을 입히고 있었다. 그녀는 어두운 색의 진흙을 사용하여 집안을 장식한 것을 내게 보여 주었다. 그것은 아름답게 보였다. 에케티는 원리를 배웠으며, 그것을 그녀에게 실용적인 방법으로 적용한 것이다.

그녀의 모범을 통해 나는 내가 기독교 정신의 원리를 얼마나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아무래도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했던 실천 원리는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예를 들면 많은 경우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러나 나는 그것을 실천할 아무런 방도가 없단 말이야.” 돈과 물질이 기독교적인 봉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깔개나 이웃에게 나누어 줄 따뜻한 한 조각의 빵인가?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를 찾기 위해 아프리카로 가야 할 것인가? 나는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봉사하든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리라 믿는다.

내가 배운 두번째 원리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아프리카에서 내가 경험한 것은 특별한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구세주께서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모범으로 보여 주셨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떠나 멀리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가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백성들에게로 가셨으며, 여러 종류의 사람들, 부자와 가난한



자, 정치인, 병자, 절름발이, 소경, 세리, 굶주린 자, 지친 자, 외로운 자, 심지어는 가치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과도 사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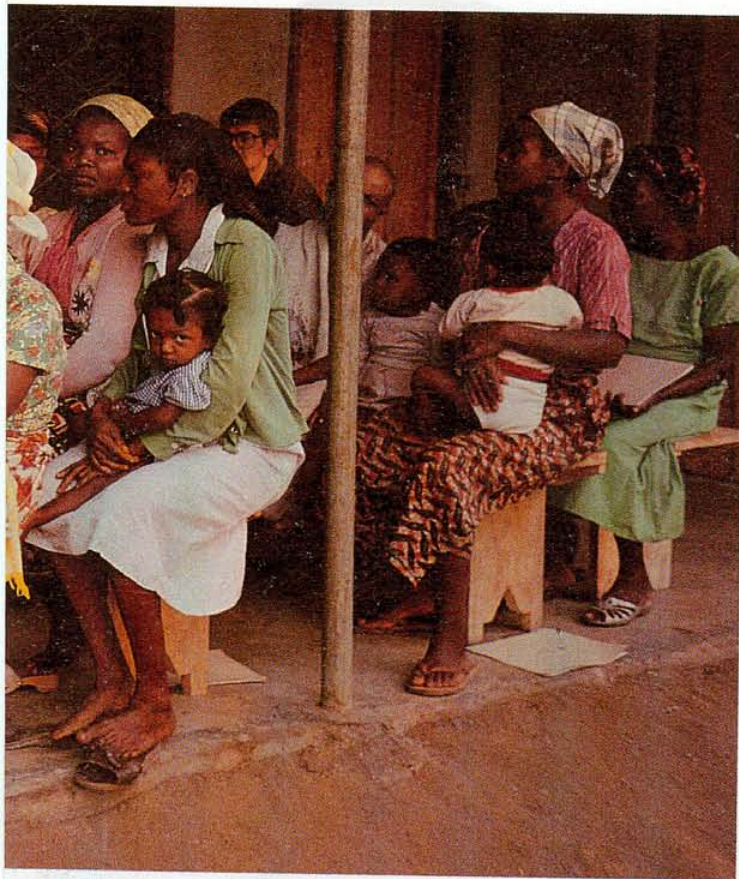
아프리카에 있을 때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실천을 하는데는 아프리카가 나에게 가장 훌륭한 곳이었음을 확신했다. 이제 나는 집에 있으며, 기독교인으로서 나에게 가장 실질적인 장소는 바로 이곳 내 백성들 가운데 있다. 이것은 나에게 하나의 과제이다. 때로는 나의 바쁜 스케줄 속에 형제, 자매, 이웃 또는 친구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보다는 “세상을 구하는” 조직에 돈을 보내는 편이 쉬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내가 배운 세번째 교훈은 여러 다른 환경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에케티와 그녀의 가족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경험을 했다. 그러나 그녀가 경험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장 훌륭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그녀를 돕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나의 세 명의 자녀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자신의 팔에 안겨 죽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나는 다음 끼니는 어떻게 구할까를 걱정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 나는 자신의 집벽을 손수 개조하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나는 무엇이 에케티를 가장 기쁘게 해주었는지 모른다. 나는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가 갖고 있는 갖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모두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이 비슷한 부류의 사람만을 골라서 사귄다면 나는 기독교적 봉사의 기회를 많이 제한하게 된다. 나는 다양하게 경험하고, 사랑하는 나의 능력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록 나는 더욱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기독교인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나의 많은 행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에 반영됨을 알았다. 아프리카에서 나는 동료들과 함께 여러 마을에서 온 수백 명의 사람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임을 알았다. 어떤 사람은 백인 보건 요원이 무료 봉사 약품 또는 일자리를 줄 것이라고 믿고 오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그들 마을에 있는 백인의 얼굴에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다. 가족의 건강이 염려되어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아픈 것을 무서워했으며 자녀가





죽지나 않을까 하고 두려워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더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이 오니까 따라 왔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 속에 사랑이 가득하여 자신의 생활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기 위해 왔다.

우리가 하는 일에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무엇인가 무료로 얻겠다는 생각으로 오는 사람은 곧 오는 일을 중단한다.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흰색 얼굴에 익숙해지면 곧 떠난다. 가족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곧잘 해냈다. 그들은 현재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어떤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필요 사항에 대한 지식을 쌓아 두기도 한다. 사랑으로 동기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오래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배운 바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앞장서 나누어 주었다.

에케티도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만일 당신이 내게 돈을 주었다면 액수의 다소에 관계없이 지금 썸은 다 써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나에게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지식을 주었어요.” 작년 썸에 에케티는 우리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스스로 다른 마을에서 여러 그룹의 여성들을 가르칠 교사들을 훈련시켰다.

에케티의 생활에서 나는 실질적인 기독교 정신인 사랑을 보았다. 복음의 원리에 따라 그녀는 일상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찾았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

나는 지난 십년의 세월에서 거의 절반을 고향을 떠나 생활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많은 종류의 사람, 그들의 환경과 믿음 등을 보고 경험했으며 자신의 생활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들여다 보았다. 나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이 구세주께서 가르치고 모범으로 보여 주신 사랑의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믿는다. 나의 마음 속에 그러한 사랑을 지닌다면 그곳이 이곳이든 에케티의 세계이든 실제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앤 레플렌은 어린이를 위한 트레이 인터내셔널 프로그램의 이사였으며, 현재는 교회 잡지 부편집인이다. 그녀는 솔트레이크시티 밀크리크 스테이크의 밀크리크 제2와드 회원이다.

“호그씨가 저에게 ‘도대체
누가 보냈오? 일자리가
없어요’ 창피해서
혼났어요.”



“히긴스 형제의 영감”

라버드 존

막 안락 의자에 앉아 내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려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제가 나가 볼게요.”하고 아내가 말했다.

“이 시간에 누굴까?”하고 나는 혼자 말을 했다. “늘 그렇다니까,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려 하면 꼭 방해를 받는단 말이야.”

“가정 복음 교사예요.”하고 아내가 말했다. “오늘 오후에 히긴스 형제님이 전화하신 것을 당신에게 말씀을 안드렸군요. 그는 오늘 저녁 시내로 떠나기 전에 우리를 일찍 만나보고 싶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히긴스 형제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항상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떠십니까? 오늘 아주 좋은 날이었죠? 제가 헤드릴 일이 있습니까?”

“맞아, 그는 언제나 그렇게 말을 시작했지.” 나는 계속 이렇게 생각했다. “새로운 얘기는 들을 수가 없지.”

히긴스 형제가, “제가 헤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하고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지. 기회를 주어 보자.”

나는 이렇게 말했다. “네, 형제님께서 도와 주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미하일이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일자리를 찾으려 애썼지만 찾지 못해 실망해 있습니다. 나도 그 애를 도와 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일할 만한 곳 아는 데가 있으신가요?”

“아, 그거 어려운 문제군요.” 하고 히긴스 형제가 대답했다. “당장 아는 곳은 없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히긴스 형제가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었다. 그러나 나는 가정 복음 교사들이 지명받은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영감을 받는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히긴스 형제가 도울 수 있든 없든 우리의 문제를 가정 복음 교사에게 알렸다는 사실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틀 후에 히긴스 형제가 전화를 걸어 왔다. “미하일에게 리드 회사 타이어 상점으로 가서 호그씨를 만나 이야기하라고 하십시오. 일자리가 있습니다.”하고 말했다.

미하일은 오랫동안 일자리를 찾아 다녔기 때문에 그

소식에 몹시 기뻐했다. 그러나 얼마 후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걸음걸이로 보아 일이 잘 안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하고 짐으로 들어서면서 소리쳤다. “호그씨가 저에게, ‘도대체 누가 보냈오? 일자리가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당신의 신청서는 여기 쌓여 있는 이 서류 몽치 밑에서 기다려야 될거요.’하고 말한걸요. 창피해서 혼났어요. 가지도 말 걸 그랬어요.”

나는 미하일의 실망감을 알 수 있었으며, 그를 격려해 주려 애썼다. 그러나 나는 어째서 일자리도 없는데 가정 복음 교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날 내가 전화를 받았을 때 저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난 호그씨요. 미하일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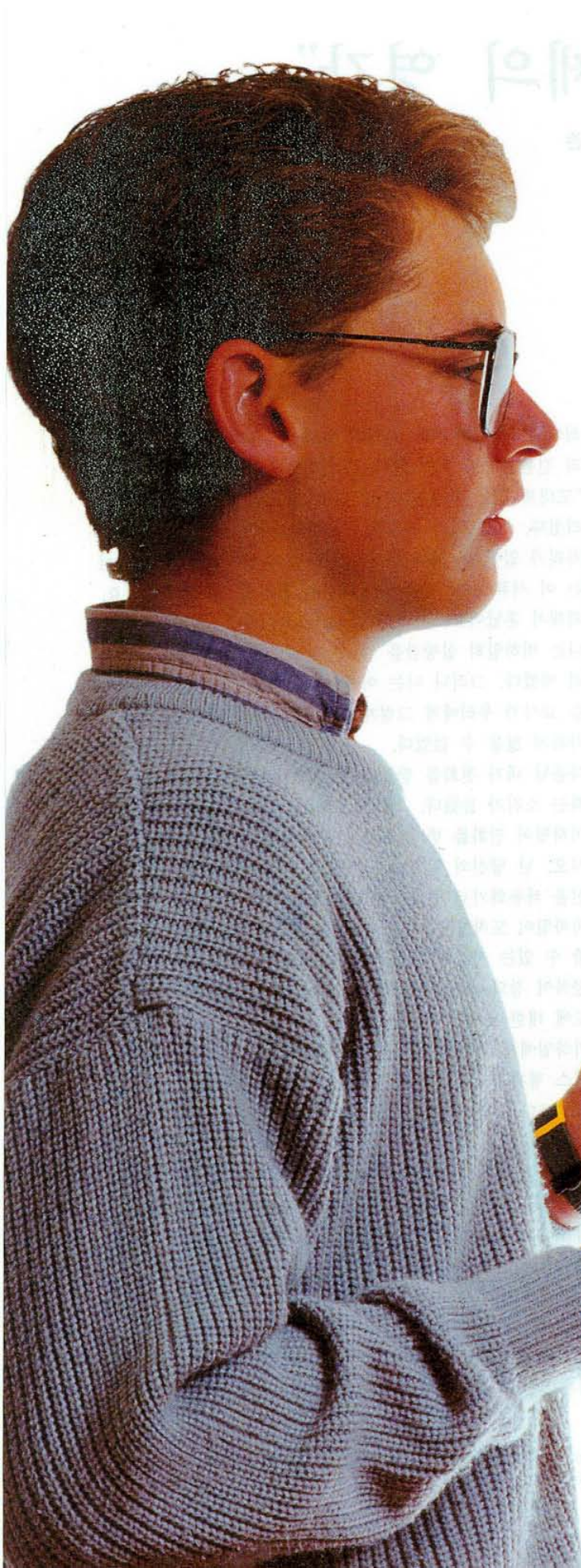
미하일이 전화를 받아 호그씨가 말했다. “상점으로 오시오. 난 당신의 일하려는 진지함과 열의에 감명을 받고 당신을 채용하기로 했오. 오후에 당장 일할 수 있오.”

미하일이 도착했을 때 그는 일자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시간까지 선택할 수 있었다. 그는 근무 시간을 조정하여 강의 시간에 방해받지 않을 수가 있었다. 진지한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응답이었다.

미하일에게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나는 히긴스 형제가 호그씨에게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호그씨보다도 먼저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히긴스 형제가 다음에 방문을 했을 때 나는 그간의 경위를 이야기했다. 그는 미하일이 일자리를 찾으려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도했으며, 그가 그러한 것을 알고는 전화를 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주님께서 우리 가족의 필요 사항을 아시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정 복음 교사를 사용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졌다. 그들은 기도를 드려 인도를 구했으며,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다.*



“부모와 대화하는 방법”

크리스 크로우

자녀가 부모들과의 대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브래드는 그의 부모가 이혼하려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여러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시계를 들여다 보았다. 새벽 한시였다. “이런, 집에 가야 할 시간이 훨씬 지났어.” 하고 내가 말했다. “아버지가 화내실거야.” 나는 브래드에게 날이 밝으면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하고 집으로 뛰어왔다.

현관의 불이 아직도 켜 있었다. 좋지 못한 신호다.

그것은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의미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지금이 몇 시인지 아느냐?”하고 아버지가 소리치셨다.

“한 시가 넘었다. 내가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하지

않던?”

“네, 하지만...”

“하지만, 뭐야?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다시는 오랫동안 친구를 만나러 가지 못한다.”하고 아버지는 화가나서 말씀했다.

나는 재판도 받지 않고 벌을 받는 느낌이였다. 그것이 좋을리 없었다. “그것은 불공평해요. 적어도 설명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설명할 것도 없어. 넌 늦었어. 그게 전부야. 이제 가서 자.”하고 아버지가 말씀했다.

“아빠, 그거 불공평해요.”하고 내가 말했다.

아버지와 내가 나눈 대화는 서로 비난하는 논쟁이 되었다. 아버지는 나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는다고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내가 그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말씀했다.

결국 잠자리에 들게 되었을 때 나는 너무나 흥분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나는 브래드에 대해 염려되었으며 브래드의 문제에 대해 아버지에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이 몹시 실망되었다. 나는 집에 들어와 브래드 부모에 대해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대화를 나누기는 커녕 내가 늦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한참 동안 언쟁을 했다.

나는 참으로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기를 원했으며, 때로 아버지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어떤





여러분과 부모에게
시간이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
내도록 한다. 조금만
생각을 기울여 본다면
여러분은 부모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유에선지 우리는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다.

부모와 대화하기란 늘 쉬운 일만은 아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어쩌면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하나일지 모르지만) 부모와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 젊은이들은 아무런 두려움이나 어색해하지 않고도 어떤 일이든 모두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 십대 소년으로서 나는 늘 부모님과 함께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우리는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다. 돌이켜 보면 나는 기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었다. 자녀들이 부모들과의 대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첫번째 일은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해 볼 가치가 있다. 내가 아는 십대의 학생은 이렇게 말한다.

“아빠와 나는 대화를 했지만 함께 앉아서 장래의 문제, 현재의 문제 또는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사실상 아버지와 함께 진지하게 처음으로 대화를 나눈 것은 아버지가 감독으로 있을 때 나의 생일날 접견을 할 때였습니다.

“그 접견은 내가 아버지를 도우려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의 대화는 향상될 수 있음을 아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대가 하루 아침에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로 아버지와 나도 함께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찾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내가 아는 한 소녀는 일주일에 한번씩 그의 부모와 접견을 한다. “나는 분명하고 형식적인 방법으로 ‘접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쁘지 않을 때 그들의 유년 시절, 학창 시절과 같은 것들에 대해 물어 봅니다. 일단 대답하기 시작하면 나는 앉아서 듣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해 내가 알게 된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하고 그녀는 말했다.

어떠한 상황에서나 부모님과 대화를 더 많이 나누게 되면 위기나 감정이 격해 있을 때에도 쉽게 대화할 수 있게 된다. 의미있는 대화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 연습은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대화할 기회를 찾기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창조적인 접근을 시도해 본다. 어떤 젊은 선교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진지하거나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까이 지내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진지한 대화는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묻고 싶은 질문도 많았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장문의 편지를 써서 화장대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었으며, 우리는 내가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두어 번 훌륭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과 부모에게 시간이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 내도록 한다. 예를 들면 아침 일찍 일어나든지 저녁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고 기다림으로써 방해받지 않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여러분은 부모와 약속할 수 있으며 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적어 놓을 수 있다. 조금만 생각을 기울여 본다면 여러분은 부모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러분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해 주기를 바랄 때도 있을 것이다. 이미 여러분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어른들은 자녀들이 실제로는 바라지 않을 때라도, 충고해 주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 실은 나도 그런 사람이다. 나의 딸 크리스티는 학교에서 또는 친구와 함께 있었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나는 곧 그애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애가 해야 할 일을 말해 주기 시작한다. 나는 크리스티가 나의 권고를 듣기 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함을 알고 있지만 때로는 자신을 억제할 수 없을 경우가 있다.

내가 맡은 학생 중에 부모가 또는 다른 성인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충고하려할 때 취하는 좋은 태도를 터득한 학생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충고해 주는 일을 좋아하십니다. 대개의 경우에 나는 그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 나는 부모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들어 주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엄마, 아빠,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말을 마칠 때까지 아무 말씀도 마시고 제 말을 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난 이것을 꼭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듣고 싶지 않으시다면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만일 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겠어요.’ 그 방법은 효과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늘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때로 감정에 사로잡혀 대화를 방해할 수 있다. 어느 한쪽에서 감정이 상해 있을 때 대화의 길은 막히고 만다. 어떤 고등학생이 한 번은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아버지는 제가 운전 면허증을 따는 것에 대해 이야기만 하면 화를 내십니다.”

“그래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 어떻게 하지?”하고 내가 물었다.

“저도 화를 내지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심한 언쟁을 벌이게 됩니다.”

감정적인 주제에 대한 것도 누구든지 “심한 언쟁”을 벌이지 않고도 토론할 수 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말하기가 두려울 때는 여러분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해 본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또는 여러분의 부모가 기분이 언짢을 때 “...에 대해 몹시 화가 나셨나 봐요”하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감정을 인식하도록 한다. 대화에 개입되는 감정을 여러분과 부모가 더 잘 이해할수록 대화하기가 쉬워진다.

나는 밤늦게 돌아왔을 때의 일을 좀더 다르게 처리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가 너무나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 내가 아버지와 언쟁을 벌인 것은 소용없는



어떠한 상황에서나
부모님과 대화를 더 많이
나누게 될수록 위기나
감정이 격해 있을 때에도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중에 아버지에게 가서 우리의 감정이 모두 어느 정도 누그러진 뒤에 나의 느낌을 설명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일은 나에게 언제나 힘든 일이었다. 이와 같은 대화의 부족에서 좌절감을 느끼면서도 지나치게 실망하거나 화를 낼 수 없었던 것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도 부모님을 사랑했다. 우리가 나눈 대화는 부족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 위치를 벗어나지는 않았었다.

자녀와 부모간의 그와 같은 사랑은 효율적인 대화에 기초가 된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든 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든 그들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부모와의 대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단계를 밟아 나가기 시작할 때 그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오직 한 명의 어린이

카렌 에이 앤더슨

와드 초등학교 회장단은 이듬 해의 조직의 필요 사항을 검토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우리가 제니를 위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하고 한 사람이 물었다. “와드 전체에서 열한 살 된 아이는 그 애 하나뿐입니다. 합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사를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특별히 한 어린이를 위해서 말입니다.”

초등학교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앤더슨 가족은 현재 제니의 언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니는 그가 요구하는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결정에 대해 특별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 당시 초등학교는 평일 오후에 가졌으며 평일에 초등학교에서 가르칠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오직 한 어린이를 기꺼이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이튿날 초등학교 회장은 와드 회원 목록을 살펴보았다. 적절해보이는 사람들은 이미 한 가지 이상의 부름을 받은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 문제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져가 제니를 가르칠 교사를 찾는 문제에 관해 기도드렸다.

그 다음에 와드 목록을 살펴보았을 때 그녀는 잘 선택한 것 같지는 않았으나 코너 자매의 이름에 관심이 끌리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코너 자매는 자신이 훌륭한 교사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코너 자매는 여러 번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훌륭한 교사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긴장하게 됩니다.” 코너 자매는 너무나 자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와드의 모든 회원들은 그녀가 실제로 그런 줄로 믿었다. 그러나 영의 속삭임에는 실수란 없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회장은 자신의 요구 사항을 감독단에게 알렸다.

코너 자매는 자신이 부름받은 것에 대해 놀랐다. “정말입니까?”하고 그녀는 감독에게 물었다. “제가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감독이 대답했다. “네, 정말입니다. 코너 자매님, 주님께서는 이 부름에 자매님을 필요로 하십니다. 제니를 위해 자매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 주님께 여쭙어 보시기 바랍니다.”

코너 자매는 부름에 대해 크게 긴장하기는 했지만 반원이 한 명이라는 사실에 안심했다. 제니는 자신을 위해 교사가 있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했다. 그녀의 부모는 코너 자매가 흔하지 않은 그러한 부름을 받아들인 것에 마음을 놓고 또한 감명을 받았다.

초등학교 회기가 시작되었다. 초등학교를 하는 날에는 언제나 똑같은 작은 방에서 코너 자매와 제니를 볼 수가 있었다. 코너 자매가 공과를 가르치고 그들은 함께 계획하고 즐거움을 나누었다.

어느 겨울 목요일, 제니는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감기 때문에 아픈듯이 보였다. 어머니가 제니에게 초등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자 제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는 몰라요. 난 가야해요. 코너 자매님에게는 내가 필요해요. 내가 안가면 아무도 가르칠 사람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자매님은 몹시 슬플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코너 자매와 제니 사이에는 우정과 사랑이 커졌다. 코너 자매는 제니에게 바느질을 가르쳤고 제니는 코너 자매에게 “자신의 교사”를 갖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었다. 제니는 그 해에 많은 새로운 기술을 배웠으며, 코너 자매는 자신도 참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며 가르치는 일을 사랑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졸업 시기가 가까워 오면서 코너 자매와 제니는 제니의 졸업이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기를 원했다. 제니의 어머니는 새로운 옷을 만들 천을 샀으며 제니와 코너 자매가 함께 바느질을 했다.

드디어 졸업일이 되었다. 프로그램은 멋지고도 영적이었으며 제니는 코너 자매와 함께 만든 옷을 입어 더욱 예쁘게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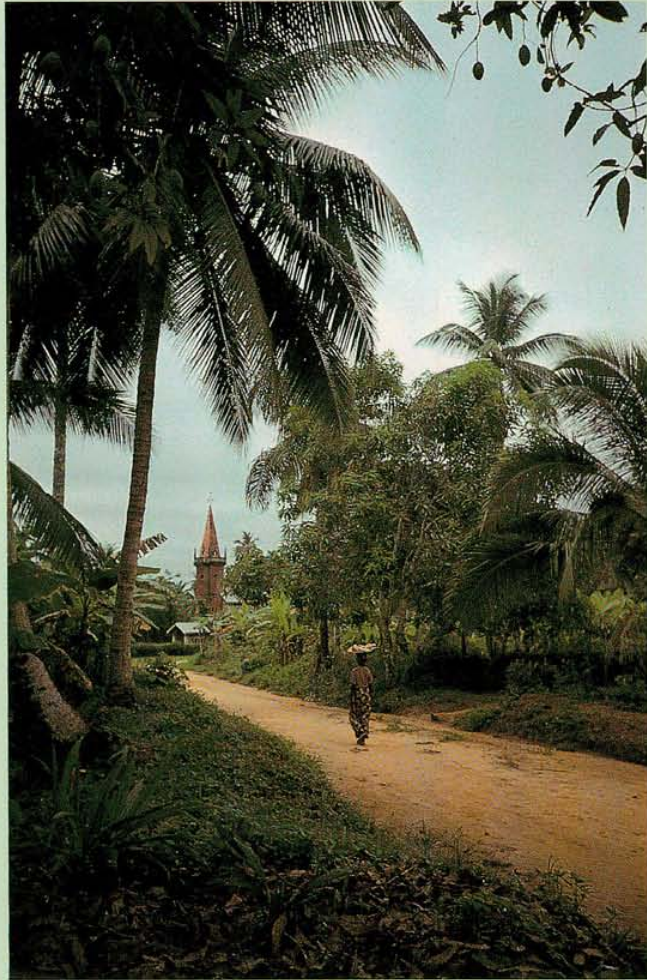
제니는 이제 아름답고 자립심이 강한 성숙한 여인이 되었다. 결혼을 한 지 9년이 지난 그녀는 오직 한 명의 자녀만 두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오래 전에 코너 자매로부터 “오직 한 명의 아이”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그동안 코너 자매는 훌륭한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그녀는 아직도 학생수가 적은 반을 가르치고자 한다. 제니를 가르치던 때에 관해 질문을 받을 때면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별로 한 것이 없어요. 그것은 결코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즐거웠어요. 나는 다만 제니를 좋아했을 뿐입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그 일을 하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지금도 그녀가 그립습니다.”*

카렌 에이 앤더슨은 파고 노스 다코타 스테이크,그랜트 포크스 제2와드 회원이다.



엘마의 개심, 개리 엘 컵 작: (엘마와 모사이아의 네 아들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돌아다닐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저들 앞에 나타나...천둥같은 목소리로 저들에게 이야기 하는지라 저들이 딛고 선 땅이 진동하였더라. 이에 저들이 심히 놀라 땅에 엎드러졌고, 천사가 저들에게 이른 말을 깨닫지 못한지라, 천사가 다시 큰 소리로 이르기를, 엘마야 일어나 내 앞에 서라.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모사이아서 27 : 11~13)



“기독교 정신이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기독교 정신은 피부 색깔이나 인종, 돈을 버는 방법 또는 시장에서 무엇을 사느냐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것은 기후나 지리적인 위치에 의해 결정되어서도 안됩니다.”